News p/5



안전한 병원은 어디에 있나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제3239호 www.metroseoul.co.kr

Industry p/11



KT, 기가LTE 세계최초?



데이브 루이스 영국 테스코 사장. 대규모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연합뉴스

홈플 장부가치 조작의혹

영업이익 2천억 흑자 불구 감가상각 등 급증해 순익은 3천억 적자
홈플러스 노조 "투기자본에 손쉽게 넘기려 테스코가 작업" 주장

매각설이 돌고있는 홈플러스(대표이사 도성환)가 2014년도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계상해 회사 장부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영향으로 우량기업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194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지배회사인 테스코 본사(사장 데이브 루이스)가 사모펀드 등 국제 투기자본에 홈플러스를 손쉽게 넘기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홈플러스의 매출은 전기 대비 3.72% 감소한 약 7조 525억원을,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22.54% 줄어든 19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내수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유통업계 전반의 지난해 실적 하향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463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98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순이익이 1년새 약 7600억원이나 급감한 셈이다.

이는 2014년 회계에서 '유형자산감액 손실액(감가상각+손상차손)'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형자산감액손실은 건물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등의 자연적·인위적 가치 감소분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2~2013년에는 매년 평균 10% 정도씩 늘어나던 유형자산감액손실액이 2014년에는 16%로 증가폭이 늘었다.

즉 2012년 2290억원, 2013년 2051억원이던 유형자산감액손실액이 2014년에는 전년대비 두배 이상인 4530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014년 감액손실이 급증한 것은 예전에는 계산에 넣지 않았던 항목과 향후 예상 손실까지 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자산감액손실의 급증이 홈플러스 매각설과 겹치며 루이스 사장이 홈플러스 장부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회계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2014년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에 유통업계 평균 에비타멀티플(EV/EBITDA, 기업가치/EBITDA) 8배를 적용한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약 6조6000억원이다. 이외의 유·무형 자산을 합한 기업가치는 최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한 회계 전문가는 "10조원에 이르는 거대 매물의 장부가치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 투기자본이 쉽게 달라 붙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저평가된 상태라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테스코나 홈플러스 임직원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데이브 루이스 사장이 튼실한 기업의 자산가치를 낮춰 투기자본에 넘기려고 한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으로 모(母)기업의 이익 올려주는 것은 루이스 사장의 특기다. 이 사실을 도성환 대표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사 측 관계자는 "매각설 자체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우리도 테스코 측에서 답변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가뜩이나 내수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인데 출처도 불분명한 매각설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데이브 루이스 사장은 지난해 첫 외부인 테스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07년 유니레버에서 30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한 이후로 '불도저 데이브'·'과감한 데이브'(drastic Dave)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영국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가 한국 홈플러스 매각주간사로 HSBC를 선정하고 사모펀드와 일부 기업에 투자설명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인수 후보로 언급된 사모펀드는 KRR, 칼라일, CVC 파트너스, TPG, MBK파트너스 등이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수구꼴통과 종북좌파 발언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혐오 발언' 처벌법 토론회
일베 등 '극우적 혐오발언만 겨냥' 논란 쟁점

"수구꼴통은 개인적 평가고 종북좌파는 국가적 평가다. 종북좌파는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혐오 발언 처벌법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혐오 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토론회'의 쟁점은 극우 발언만을 겨냥해도 되냐는 문제였다.

한 교수는 극우적 혐오 발언만 대상으로 한다는 논란에 대해 "(종북좌파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판단한 내용이지만 수구꼴통은 그렇게 판단 내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이에 사회적, 역사적 맥락성이 있을 경우가 혐오 발언"이라며 "혐오 발언은 대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동시에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종북 등 정치적 혐오발언이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으로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해 국가의 통치술이 작동하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웅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민주화운동이나 호남, 여성, 외국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베는 우파성향 네티즌들의 놀이터"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같은 혐오성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는 경우라도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범위를 규정지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만큼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규제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혐오 표현 처벌에 앞서 차별금지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북 발언도 차별 표현 범주에 속하냐는 질문에는 "우선 종북 차별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선동 발언이 실제 차별로 연결된다면 규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수약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 발언으로 유명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홈페이지. 여기에는 홍어(전라도 사람에 대한 비하 표현)나 좌빨(좌파빨갱이)등 특정 지역·진영을 비하하는 발언이 넘쳐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참고해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별이나 종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특히 선거 때 악영향을 고려했다.

토론에 앞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역 감정 편승이 범죄 행위 수준에 진입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범죄형태가 계속되는 건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 발언이 게이트키핑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빠르게 확산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제재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를 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황교안 '반쪽 총리' 면할 듯

여야, 본회의서 표결 처리 합의

여야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여당 단독 표결로 인한 '반쪽 총리'의 탄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황 총리 후보의 사과 발언 수위나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내용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최악의 정국 경색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를 했다.

이날 회동에선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3개 법안(변호사법·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감하면서 의견이 합치됐다. 새정치연합은 3개 법안 개정을 임명동의안 표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여야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합의에 걸림돌이 됐던 황 후보자의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사과는 황 후보자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황 후보자는 인준이 통과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새누리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반쪽짜리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 단독 처리는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다.

한편 총리 인준이 연기되면서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 신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아빠 군대가면 양육수당 매달 20만원

국방부 내년도 예산안 제출
올해보다 2조7000억원 증가

앞으로 자녀가 있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 내년부터 매달 20만원의 양육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급은 정부의 출산 장려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15만4800원인 상병 월급도 내년에 17만8000원으로 2만3200원이 오른다.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40조1395억원으로 올해 국방비 37조4560억원보다 2조6835억원(7.2%)이 인상된 규모다. 전력운영비 27조7641억원(5% 증가), 방위력개선비 12조3754억원(12.4% 증가)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정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공정위 '메르스 불안심리 악용상술' 재경고

필요하면 오픈마켓 선별적 직권조사 실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후 모니터링 강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열린 4·16 가족협의회의 항의 집회때 경찰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에서 바이러스의 차단등급을 속여 파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불안심리를 마케팅에 악용하는 업체에 다시 경고를 보냈다. 특히 오픈마켓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를 시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오픈마켓의 메르스 상술에 대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픈마켓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메르스 악용 상술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주요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 차단,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업체 △마스크,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과장 광고하는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살균 제품과 관련해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과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업체는 살균 기능이 있는 LED 램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상품'이라거나 '신종 바이러스 제거' 혹은 '신종바이러스 불활성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품과 관련해 F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다. G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마스크 제품의 경우, H오픈마켓은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 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제조사는 차단율이 KF94 등급 제품보다 낮은 KF80 등급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와 무관한 온·습도계를 판매하는 L업체는 '메르스 대비'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M업체는 역시 메르스와 무관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거리 텅 비었는데, 정부 대책은 게릴라식"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방문 도중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만나 메르스 퇴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세월호보다 경제 충격 큰데, 정부는 간과"
최경환 "오늘부터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원지인 (경기)평택에 가면 아예 길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메르스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도 감소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편성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메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는 각 부처가 단편적, 게릴라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좀 혼란스럽다"며 "이런 사태가 경제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빨리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경제5단체 등이 솔선수범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총리 대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평택, 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원기자 garden@

유럽 '코르스' 경보

한국 다녀온 뒤 열만 났다하면 '화들짝'

유럽에서 코르스(KORS) 소동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을 다녀온 뒤 열만 났다하면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다. 메르스로 의심돼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사는 60대 여성이 한국을 다녀온 뒤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됐다. 이 여성은 최근 서울 인근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메르스 감염 환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정보는 한국 당국이 러시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해주 주정부는 혈액 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한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과 선박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체코에서는 한국을 다녀온 뒤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입원한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한국을 관광하고 지난달 30일 체코로 돌아온 뒤 체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발열과 감기 증상을 보였다.

이보다 앞서 슬로바키아에서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메르스 감염 증세를 보여 격리된 바 있다. 기아차 협력업체 현지공장 직원인 이 남성도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이 같은 소동이 잇따르자 한국의 메르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코르스 사태나 마찬가지다. 코르스는 중동과 달리 전염력은 다소 강하고 치사율은 낮은 한국의 메르스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15명에 달하는 만큼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럽 중앙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전염병이 유럽 대륙에 상륙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럽 내 한국발 메르스 공포가 번지고 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수갑채운 채 피의자 조사 논란

변호인 "방어권 훼손·인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 3명에 대해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하다 변호사의 항의를 받은 것. 변호사를 대동한 A씨는 수갑을 풀었지만 B씨와 C씨는 조사 내내 수갑을 착용한 채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계구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검경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장구 착용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다 강제 퇴실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검은 "인정신문을 끝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 검찰과 변호사단체 간의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구 착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당시 59세) 교수가 2주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2005년 계구 사용을 허용한 '계호근무준칙 298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송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인권 침해를 인정받아 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37)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계구 사용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절도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 청소년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폭행 등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확대되자 해당 경찰관들은 합의금을 주고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검찰 진정 2204건 중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부당수사'는 770건에 달한다. 경찰 관련 진정도 1만2649건 중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이 352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등 중형사건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계구 사용이 보인다"면서 "도주우려나 자해 등의 위험이 없는 인물에게까지 수갑을 착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조성진 LG전자 사장(가운데). /연합뉴스

'세탁기 파손' 조성진 법정 선다

<LG전자 사장>

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내달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내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날 조 사장 측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고, 손괴로 보더라도 (조성진 사장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내달 열리는 첫 공판에서 양측은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녹화된 폐쇄회로(CC)TV영상 3개를 상영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21일에는 문제의 세탁기가 보관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검증기일을 갖는다. 기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 3대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적인 세탁기, 또 파손됐으나 파손자를 알 수 없는 세탁기까지 재판부는 모두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5~10일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 사장과 조한기(50) 상무, 전명우(55) 전무를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 등에 대한 혐의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홍원기자 hong@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대회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차 추진방안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노사의 핵심 현안이 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혐의' 한명숙 대법 전원합의체로 회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한명숙(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의 심리를 거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의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한 의원 사건은 상고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정치권을 의식해 선고를 미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더라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결 선고는 다시 소부로 넘겨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미란기자

대법 "스트레스로 자살한 관리 직원, 산재 인정"

회사 관리직을 맡고 나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8년부터 20년간 생산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2009년 5월 A씨에게 작업반의 다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맡으라고 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절했지만 회사가 계속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A씨는 관리직에 대한 부담감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조원 9명 중 7명이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A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점도 스트레스 이유였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

가족들은 A씨가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1년 8월 숨졌다.

유족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 관리직을 맡게 된데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우울증을 앓은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 때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관리직을 맡기 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메르스發 의료대란… 위급할 땐 어디로 가나

응급실 진료 중단 병원 전국 40여 곳
확진자 18%·격리자 상당수가 의료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하루 사이 8명이 추가돼 16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20명, 치사율도 12.3%로 상승 중이다. 격리자 역시 922여명이 급증해 6508명이 격리됐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하고 치료 중인 124명 가운데 18명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렇듯 메르스 감염자는 연일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늘이 고비라며 계속 헛발질을 하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환자를 격리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이 15일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갔고 이어 대전 건양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전국 40여 병원이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료공백'이 시작됐다. 특히 위급한 일반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대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나 입원을 한 환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의료난민'이 될 처지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암 수술의 10%를 차지해 수술 중단으로 인한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 중증 환자들 역시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피해 여기저기를 난민처럼 떠돌다보면 의료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약 2000병상이 다 찰 정도로 전국규모의 초대형 병원에 속한다. 평소 하루 평균 응급환자 200여 명, 외래환자 8500명이 찾고 205건의 수술을 진행해온 만큼 외래와 응급실 업무 중단으로 인한 의료계 파장은 클수밖에 없다.

2014년도 한국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들의 진료에 얼마나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 심평원이 내놓은 '2014 진료비통계지표'



'국민안심병원' 설명하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오른쪽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에 나온 환자수는 1년간 총 입원수는 7백44만9000명이고 외래환자는 4904만1000명에 이른다. 또 전국 요양기관 현황은 총 6만5571개소이고 의료진은 일반의 9만2927명, 치과의 2만2952명, 한의사 1만8767명이다.

이 통계처럼 거의 전국민이 연 1회 이상 병원을 이용했고 입원수는 전체 인구의 15%가 해당된다. 그리고 일반의 1명에게 진료 받는 환자수는 70여명다.

그런데 의료진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 의료 대란 가능성도 높아진다. 17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2명 중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은 28명으로 18%에 달한다. 더군다나 6500명이 넘는 격리대상자의 상당수가 의료진인데다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나머지 인력들이 대신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메르스사태가 장기화 될 수록 병원가기를 거부하는 일반환자들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만약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면 병의 위중이 더 깊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병원들의 수입도 대폭 감소하게 돼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의협의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가 폐쇄된 병원이나 의료진에 재정지원과 보상은 전혀 하지않고 있다"면서 "메르스 검사를 하는 PCR은 한번에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개인병원은 문을 닫는 동안에도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한다. 의사 뿐만 아니라 만성 신부전 환자나 임산부 등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면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계속해서 "일선 보건소의 경우 메르스 초기대응이 지금까지 계속 보고되는 것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보았다. "환자들이 메르스로 인해 안심병원을 찾아 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숫자발표만 할 뿐 부족한 의료인력과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캠핑장 천막, 8월부터 '전기·화기' 사용 금지

8월부터 캠핑장 설치 천막에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17일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지난 3월 전기전열기 과열 화재로 5명이 숨지는 등 캠핑 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



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3번째 위반 시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네 차례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별도로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된다.

자연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 때 야영장 지역이 자연재난 취약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올해 8월 3일까지 담당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정부는 미등록 야영장에는 불법 영업임을 알리고 영업중단을 요구하며 다음해 2월 4일부터는 폐쇄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홍원기자 hong@

'티머니 단말기 조작' 17억 빼돌린 업자 구속 기소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자 화폐 티머니(t-money)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십억여원을 빼돌린 티머니 가맹점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맺은 상품권 도·소매업체 G사 홍모(39)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해 1월26일 대전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티머니 카드 단말기로 5만원을 결제한 내역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보낸 뒤 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홍 대표는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24일까지 '티머니 카드 결제 정산금' 명목으로 1만2560차례에 걸쳐 17억53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대표는 결제를 취소했다는 전산 자료가 한국스마트카드 측에 전송되지 않도록 티머니 카드 단말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홍 대표는 티머니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직후 이를 취소하고, 결제 내역만 한국스마트카드 측에 보내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자 티머니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등 수법을 바꿔 결제 취소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미란기자

'납품비리' 신헌, 항소심서 집유

<前롯데쇼핑 대표>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61)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지난 1년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홈쇼핑·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삼성, 전기자동차 카드 만지작 만지작

車관련 특허 632건 출원… 구글·애플 압도
보폭 넓히면서 기존사업과의 시너지 주목



삼성SDI의 자동차용 배터리 모듈. /삼성SDI 제공

삼성이 전기 자동차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격적인 특허 출원은 물론, 관련업체에 투자를 늘리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삼성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094건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삼성의 자동차 관련 특허는 구글과 애플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만 삼성은 632건의 자동차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간 구글과 애플의 자동차 관련 특허는 각각 147건, 78건 이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다. 두 회사는 커넥티드 자동차 시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구글(안드로이드오토)과 애플(카플레이)은 완성차 업체들과 커넥티드 자동차 플랫폼 탑재를 조율하고 있다. 구글은 자율주행자동차까지 테스트하며 잰걸음을 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시장에서 구글·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 역시 전기자동차 관련사업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는 "자동차사업 진출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가능성 있는 분야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은 콕스 오토모티브, 콘티넨털, 웨스틸리 그룹 등과 손잡고 스마트카 부품 제조업체인 빈리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빈리는 어떤 차에서도 구동될 수 있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삼성이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업계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주목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제조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경우 삼성SDI의 배터리·소재 기술이 큰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운영체제(OS) 타이젠 등도 자동차 관련사업에 접목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자동차 특허를 분석한 포브스는 삼성이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조기술과 배터리기술 등을 갖고 있는 삼성은 (자동차 시장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 자동차 시장에서 철수 했던 경험이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올해 210만대 규모에서 2017년 470만대, 2020년 770만대로 연평균 24%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 2008-2014 산업은행과 산은행우회 출자사 간 용역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95,104	46,017	47,464	52,836	104,319	181,314	70,138
두레비즈	3,505 (3.7%)	3,066 (6.7%)	7,119 (15%)	9,838 (18.6%)	8,639 (8.3%)	14,735 (8.1%)	15,577 (22.2%)
두레파트너즈	-	-	141 (0.3%)	-	-	406 (0.2%)	-

KDB산업銀, 자사 행우회에 일감 몰아줘

7년간 630억원 용역 계약

KDB산업은행이 지난 7년간 현직 임직원들이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이 자사 행우회(산은행우회)가 출자해 100% 지분을 소유한 '두레비즈'와 그 자회사인 '두레파트너스'에 모두 123건(630억2600만원)의 용역 계약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결과다. 특히 123건의 용역 계약 중 대부분(94.3%)인 116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5건(4%)은 제한 경쟁으로 조사됐다.

일반 경쟁 입찰은 2건(1.6%)에 불과했다.

이에 산업은행이 자사 임직원 모임에 사실상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체결한 전체 용역계약 중 두레비즈의 규모도 매년 확대됐다.

지난 2008년 35억500만원(3.7%)이었던 계약금액과 비중은 2009년 30억6600만원(6.7%), 2010년 71억1900만원(15%), 2012년 86억3900만원(8.3%), 지난해 155억7700만원(22.2%)으로 늘었다.

한편 현직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는 2005년 1월 비법인사단(비영리단체)의 법적성격을 갖고 설립됐다. 회원 친목과 상호부조의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같은 해 6월 산은행우회는 6억원의 자본금으로 ㈜두레비즈를 설립했고 두레비즈와 그 자회사인 두레파트너즈는 건물관리와 경비, 인력, 청소, 취사, 시설, 수위 용역 등을 체결해왔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힘스, 매출 반토막에도 영업이익은 늘어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重, 일감 몰아주기 '오너일가에 승계' 무게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주)힘스가 매출이 반으로 줄어도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의 자회사 밀어주기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힘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2438억원으로 전년(5098억원)과 비교해 절반 넘게 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 영업이익은 47억원에서 65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0.92%에서 2.66%로 상승했다.

통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례하는 시장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태양광모듈과 건설장비부품은 비례관계를 나타냈다.

태양광모듈사업은 매출이 2013년 670억원에서 지난해 643억원으로 줄면서 영업이익도 18억에서 7억원으로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의 100만 배럴급 원통형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건설장비부품사업의 경우 매출이 1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감소하며 영업손실은 4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불었다.

반면 조선기자재사업은 매출이 615억원에서 1018억원으로 느는 동안 영업이익은 6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배 뛰었다.

영업이익률은 0.97%에서 5.89%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B&S(소모성자재 구매대행) 부문의 경우 매출이 3660억원에서 627억원으로 82% 급감했는데, 영업이익은 68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률 역시 1.85%에서 11.16%로 급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힘스에 높은 단가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중공업 퇴직임원들이 경영하고 있는 힘스를 키워 결국은 오너일가에 넘길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실제 힘스는 지난해 1888억원, 2013년엔 4667억원의 매출을 현대중공업그룹을 위시한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올렸다. 각각 그해 매출의 77%, 91%를 차지하는 규모다.

힘스 외에 노조가 지적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와 관련사로는 현대BS&C와 현대 E&T, 현우서비스 등이 있다.

현대중노조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접근되지 않고 있다"며 "100% 자회사면 현대중공업이나 마찬가진데 회계를 분리해서 간다는 건 다른 의도(경영권 승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화해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낮추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힘스 재무담당자는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유를 묻자 "해당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직접 대답할 수 없어, 현대중공업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측에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정필기자 roman@



현대증권 절세 HERO 3종사

올해 1,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124.8만원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올해 400만원 저축하면?
내년 **52.8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IRP(개인퇴직연금)

올해 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9.6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소득공제장기펀드

올해 6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2.4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농특세 고려)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5.4%**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아낌없는 재능기부… 사회공헌 1위 금융사 '우뚝'

NH농협은행

소외가정 학생 진로 상담
연중 맞춤형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선택 아닌 필수"





NH농협은행은 농촌일손돕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봉사와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중소기업 서민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이 소외된 이웃과 고객을 위해 '키다리 아저씨'로 변신했다.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말벗이 되어주고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에는 진로 상담부터 문화체험,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은행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모두 같이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금융재테크 등 정보를 알려주는 '행복채움금융교실'과 대학생 봉사단 'N돌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157개 시군별로 조직된 NH농협은행 봉사단을 통해 농촌일손돕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봉사와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중소기업 서민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은행 봉사단은 지난 한해만 3561회 봉사를 실시했다.

이는 모두 은행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진 것. 이 결과 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 꼽히기도 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991억원의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출해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출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 567억원 ▲학술·교육 분야 174억원 ▲메세나·체육 분야 86억원 ▲환경 분야 9억원 ▲글로벌 분야 1억원 ▲서민금융 부문에 154억원을 사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봉사활동은 공익·교육분야에 포함된 '행복채움금융교실'이다.

모두 669명으로 이뤄진 임직원(행복전도사)들을 재능나눔 봉사활동인 '행복채움금융교실'에서 연중 맞춤형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행복전도사들은 지난해 총1314회 걸쳐 약 7만 9000여 명에게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금융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청소년, 노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간다.

이 결과 대한민국 교육기부 우수인증(마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과 경향금융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올해 행복전도사를 1000여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금융기관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NH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전국 1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대학생 봉사단 'N돌핀'도 103명으로 확대해 전국단위로 활동 중이다.

또 7년째 농촌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말벗서비스'를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방지법과 생활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밖에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NH희망금융플라자'를 설치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농식품기업, 농업경영인을 위한 경영컨설팅도 수행 중이다.

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은 "농협은행의 사회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난 50년간 나눔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공익기관, 고객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내 최고의 사회공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농협손보, 보험계약유지율 '최고'

ACE손해·ACE생명보험 업계 최하위

ACE손해보험(73.6%)과 ACE생명보험(49.3%)의 '보험계약유지율'이 나란히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험계약유지율이 소비자 만족도와 보험사 이미지 등을 반영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발표한 '2014년 보험사별 보험계약 유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보사와 생보사의 2년(13회)차 평균 유지율(%)은 각각 81.3%, 81.1%다. 업계 전체적으로 가입자의 20%가 2년차에 보험 유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손보사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농협손보가 91.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더케이손해(89.9%), AXA손해(83.2%) 순이었다. 반면 ACE손보(73.6%)와 AIG손보(74.8%) 등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생보사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95.1%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생명(88.7%), 하나생명(88.1%)이 뒤를 이었다. 반면 PCA생명(48.0%)과 ACE생명(49.3%)은 낮았다.

3년(25회)차로 넘어가면 평균 유지율은 더욱 크게 떨어진다. 손보사와 생보사의 평균 유지율(%)은 각각 65.6%, 67.1%로 이때는 생보 유지율이 손보에 비해 1.5%포인트 높았다.

손보사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은 더케이손해가 8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협(80.8%), AXA(72.4%) 순이었다. 반면 롯데손해는 51.8%로 가장 낮았고 MG손해(53.0%), ACE손해(57.2%)도 부진했다.

생보사의 25회차 계약유지율도 카디프생명이 9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협생명(84.2%)이 그 뒤로 높았다. 반면 ACE생명이 35.3%로 가장 낮았고 PCA생명(42.7%), 알리안츠생명(49.7%)이 뒤를 이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중에선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중에선 더케이손해보험의 유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bobae@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신용대출 금리 인하 행정자치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 자영업자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함께 신용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는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가계부채 잠재위험에 선제적 대응"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다"며 경기회복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는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심사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非)주택 관련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백아란기자

해외건설 텃밭 중동 대신 아시아 공략 강화

올 수주액 120억 달러 동기 대비 사상 최대

다양한 공종 수주 FTA로 진출 길 열려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저유가로 시들해진 중동 대신 아시아지역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토목공사부터 중앙아시아의 플랜트 공사 등 공종과 지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1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건설사의 아시아지역 해외수주액은 이날 기준 118억927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고다. 아시아지역 사상 최대 수주액을 기록한 2013년 동기(108억7340만 달러)와 비교해도 10억 달러 이상이 많다.

지역과 공종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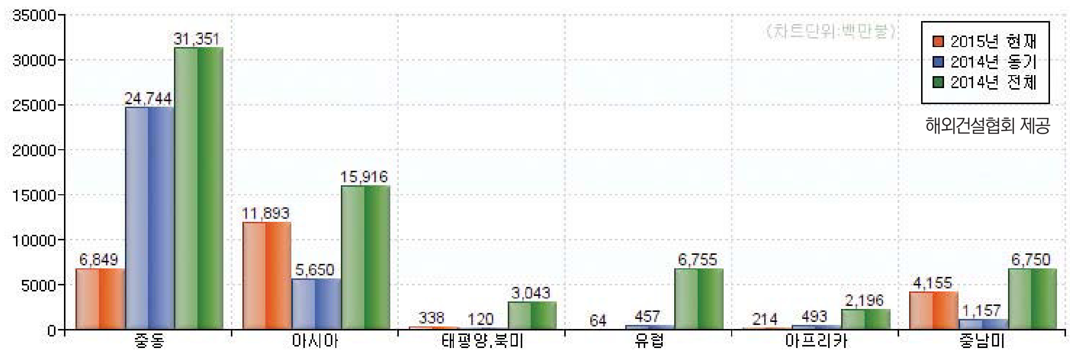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26억6000만 달러 규모의 칸딤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어 지난 4월 LG상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9억4000만 달러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과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Gas To Liquid)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토목 분야에서는 대림건설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총 규모 8200만 달러의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대림건설은 이밖에도 싱가포르에서 6억3500만 달러 규모의 항만공사도 수주했다.

중소 건설사의 아시아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우진건설은 지난 3월 13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풍력발전설비 건설사업권을 따냈다. 사업 형태는 단지가 완성되면 우진건설이 20년간 운영하고 짜빈시에 시설을 반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OT)이다.



완공되면 우진건설은 연간 172억원, 20년간 총 344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몰 '하이브랜드'를 운영하는 중견건설업체 인평도 트남 하노이에 타운하우스 359가구, 아파트 1473가구 등 총 1832가구의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인평은 이번 공급될 타운하우스에서 1000억원, 아파트에서 3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의 개발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건설시장의 30%에 육박하는 중국시장 공략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중국 건설시장 진출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중국이 추진 중인 민관협력사업(PPP)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들어 저유가로 중동에서 발주가 예정됐던 물량이 대거 취소되면서 다소 해외수주액이 감소했지만 아시아지역의 성장세로 이를 만회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플랜트, 토목, 주택 등 다양한 공정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식 서명된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등으로 국내 건설사의 아시아지역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해운대자이2차·부천 옥길자이 견본주택 개관

GS건설, 19일 동시 오픈

GS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6구역을 재개발한 '해운대자이2차'와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에 짓는 '옥길자이'의 모델하우스를 오는 19일 동시에 오픈한다.

올해 첫 부산지역 분양 물량인 해운대자이2차는 지하 3층, 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이하 동일) 59~84㎡, 전체 813가구 규모다. 이 중 ▲59㎡ 57가구 ▲74㎡ 5가구 ▲84㎡ 427가구 등 48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부산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과 2016년 개통 예정인 동해남부선 우동역(가칭)이 도보 거리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센텀시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해림초교, 해강중·고교, 부산국제외고 등도 인접했다.

앞서 2010년 10월 분양한 '해운대자이1차'의 전용면적 84㎡가 최근 2년간 1억원가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2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해운대자이2차(좌), 옥길자이(우) 조감도.

견본주택은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23일 특별공급 후 25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부천 옥길택지지구에 건설되는 '옥길자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총 710가구로 이뤄졌다.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29층, 5개동, 84~122㎡, 총 566가구다. 오피스텔은 1개동, 78~79㎡, 144실이다.

국철1호선 역곡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와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가까워 여의도·구로·광명 등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옆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이마트와 초등학교가 도보권이다.

옥길지구 내 민간아파트 중 가장 싼 3.3㎡당 평균 1000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돼 일부 세대에 3룸-4베이 설계도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부천시 범박동 128-1번지에 있다. 1호선 역곡역과 7호선 신중동역에서 모델하우스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아파트는 23일 특별공급 후 24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오피스텔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접수를 받는다.

/박선옥기자 pso9820@

대림산업, 印尼 다목적댐 공사 수주

18년 만에 현지 재진출

대림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총 공사비 915억원 규모의 까리안(Karian) 다목적댐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지난 1997년 투반 납사분해 공장 건설 공사 이후 18년 만에 현지 재진출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당국에 차관형태로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추진된다. 이 공사에서 대림산업의 지분은 51%(470억원)다.

까리안 다목적댐은 카르타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찌우중강 지류에 있다. 규모는 길이 516m, 높이 63m로 최대 3억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은 48개월로 완공되면 수도인 자카르타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농업 및 생활·산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기용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는 "본 댐의 후속 사업으로 발주 예정인 까리안 도수로 사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내 수력발전소,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추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올해 브루나이 해상교량, 싱가포르 항만 등을 포함 총 1조2400억원의 해외 토목공사를 수주했다.

/김형석기자

세종시 2-1생활권 이달 분양 신호탄

한신공영·제일건설 시작으로 7271가구 공급

세종시 2-2생활권과 함께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2-1생활권의 분양이 이달 첫 테이프를 끊는다. 전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단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2-1생활권 4개 구역에서 연내 7121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진다.

2-1생활권은 세종시 안에서도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구역이다. 세종시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앙행정타운, BRT(급행간선버스), 중심상업시설과 접한 입지 때문이다.

사실 세종시는 지난해 하반기 2-2생활권 분양 전만 하더라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됐던 곳이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세종시 아파트값 변동률만 보더라도 지난해 6월 0.46%가 빠졌다.

하지만 당시 7478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한 달도 안 돼 100% 계약을 마감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작년 7월 1344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분양 물량은 3월을 기점으로 모두 팔렸고, 아파트 매매가는 그 달 0.16% 상승세를 나타냈다.

세종시 L부동산 관계자는 "2-2생활권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된 상태"라며 "2-2생활권에 청약했다 떨어진 사람들이 2-1생활권을 노리면서 벌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 조감도.

2-1생활권의 분양 신호탄은 한신공영·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쏘아 올린다. P1구역에 들어갈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는 생활권에서 가장 큰 2510가구 규모다. 설계공모 1위 단지로 다양한 특화상품이 적용되고, 디자인 주거동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와 보고 싶은 경관이 조성된다. 26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다.

중흥건설도 P2구역에서 이달 말 1446가구의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를 분양한다. 중흥건설이 세종시에서 10번째로 공급하는 단지다. 근린공원이 가깝고, 초등·중학교 예정부지와 인접했다. 지역 최초로 아파트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한다.

P3구역과 P4구역은 9월로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P3구역에서는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총 1517가구를 분양한다. P4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1631가구를 선보인다.

/박선옥기자

칵테일소주 열풍… 무학, 주가도 "좋은데이"

롯데 '순하리' 인기 수혜
하반기 수도권 진출 기대
최근 한달 주가 41.5% 껑충



무학은 좋은데이 컬러시리즈에 스칼렛(자몽)을 추가로 출시하며 컬러시리즈 라인업을 강화했다. /무학 제공

'무학'이 칵테일 소주의 유행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학은 한국 소주업계에서 칵테일 소주 영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10여 업체로 구성된 한국 소주업계에서 두 번째로 칵테일 소주를 출시했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업계에서 가장 많은 네가지를 출시해둔 상태다.

주가 흐름도 눈에 띈다. 최근 한달간 무학의 주가는 41.5%나 상승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해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28일 기준 7만6519주였던 거래량은 이달초 32만8178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칵테일 소주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반기 수도권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김윤오 신영증권 연구원은 "칵테일 소주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무학의 뚜렷한 외형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적극적인 영업에 힘입어 무학의 주류 외형은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2016년까지는 감소하겠지만, 오는 2017년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해 2019년까지 연평균 19.0% 증가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서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무학이 롯데칠성의 '순하리' 열풍의 수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연구원은 "지난 4~5월 롯데칠성 순하리 누적 판매량이 1000만병을 돌파하면서 6월까지도 칵테일 소주(리큐르)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순하리 열풍의 수혜가 무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무학은 올 1분기말 기준 2899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과 수도권 점유율 확대에 따른 큰 폭의 판매량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실적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산에서 확고한 인지도를 구축한 무학은 현재 서울에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창원1공장이 생산을 재개하면서 현 시점에서 무학의 소주부문 가동률은 50%"라며 "6월부터 본격화되는 좋은데이 컬러시리즈 생산과 함께 향후 수도권 진출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주칵테일 시장 성장으로 인한 매출 확대시 캐파(생산능력)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감가상각비와 수도권 진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의 매출 대비 비중이 각각 작아지면서 수익성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무학이 칵테일 소주를 앞세워 수도권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전체 칵테일 소주 판매량의 10~15%가 수도권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생산능력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가동률은 50%까지 낮아진 상태다. 생산라인의 일부 보완을 통해 칵테일 소주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홍 연구원은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안정성 강화 '초저낙인 뉴하트형 ELS'

19일까지 100억 한도 판매
5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

NH투자증권은 17일부터 19일 오후1시까지 원금손실조건을 최초기준가격 대비 40%까지 낮춘 초저낙인 뉴하트형 주가연계증권(ELS)을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NH투자증권은 각기 초저낙인형 ELS와 뉴하트형 ELS가 가진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초저낙인 뉴하트형 ELS'를 판매한다.

초저낙인형 ELS는 스텝다운 ELS의 원금손실조건을 40%로 대폭 낮추어 안정성을 보강한 상품이다. 뉴하트형 ELS는 만기까지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할 경우 2단계 투자기간까지 적용되어 추가적인 조기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안정성 강화형 상품이다. 안정성에 안정성을 더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판매하는 'ELS 11061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S&P500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6개월마다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90%(6, 12, 18개월), 85%(24, 30, 36개월)이상이면 연 5.5%의 수익을 지급하며 조기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세 기초자산이 모두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일에 16.5%의 수익이 지급된다.

이번 상품은 뉴하트형의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1단계 투자기간에 조기상환이 되지 않고 원금손실조건(40%)을 하회한 경우, 2단계 투자기간을 적용하여 80%(42개월, 48개월), 75%(54개월, 만기평가일) 이상이면 연 5.5%의 수익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은 초저낙인 뉴하트형 ELS 외에도 글로벌 종목형 ELS 등 ELS 6종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오는 19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한다.

상품별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이정경기자

엘리엇 '합병저지 도전' 잡음만 내고 끝?

| 마켓인사이트 |



국내 자산운용사
삼성물산 지분 10% 보유
대체로 합병 찬성 시사

"엘리엇에 공감" 일성신약
반대표 던질지는 미지수
엘리엇, 지분싸움 불리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저지 시도가 시장에서 잡음만 만든 채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대체로 합병에 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은 다른 국내외 기관이나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삼성물산 지분은 최대 10%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일단 삼성그룹의 계획대로 합병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들이 모두 합병에 찬성한다면 다음 달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은 지분 다툼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삼성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13.8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KCC가 행사할 5.96%를 합한다면 이미 19.78%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합병에 긍정적인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지분까지 합한다면 이는 최대 29.78%가 된다.

반면 엘리엇은 지분 7.12%와 합병 반대 의견을 밝힌 네덜란드 연기금의 지분 0.26%, 역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들의 지분 0.6%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이를 다 합해도 7.98%에 불과하다. 일성신약 (2.05%)은 합병 비율에 대한 엘리엇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을 뿐 합병 반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성창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CIO)은 이날 "현재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그룹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 합병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엘리엇의 도전은 노이즈(잡음)로만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신사업을 잘 벌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 법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합병안에 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부사장도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 가치로만 보면 합병 비율이 안 맞지만 시장이 평가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 중인 국내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신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교보악사, NH-CA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17일 삼성물산은 전거래일 대비 600원 (0.92%) 상승해 6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정경기자 jkljkl@

현대증권 신임 대표에 김기범 전 대우證사장



현대증권 새 대표에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사진)이 내정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앞둔 일본계 금융자본 오릭스는 김 전 사장에게 신임 대표로 내정된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선임 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김 전 사장은 헝가리 대우증권 사장,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를 거쳐 KDB대우증권 대표이사까지 지낸 정통 증권맨이다. /김민지기자

KT "세계 최초 기가 LTE"… 경쟁사 발끈

SKT·LGU+ "동일기술 보유"
'세계 최초' 문구 놓고 시끌

대표적인 '삼성맨' 황창규 회장이 KT를 이끈 지 2년째다. 지난해 1월 취임 당시에는 그간 삼성전자에서 쌓은 실력으로 KT의 새로운 성공신화를 쓸 것으로 안팎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최근 재계 일각에서 '속빈강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황 회장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기가LTE 상용화한 것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써가며 홍보한 것은 허위 광고와 다를 게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라이벌로 불리는 양사는 그동안 자사 서비스가 세계 최초라며 소송공방까지 벌이는 등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광고 문구에 KT가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가 LTE 서비스 시연회를 가졌다. 기존 LTE보다 15배, 3밴드 LTE-A보다 4배 빠른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LTE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의 발표 직후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강조한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정면 반박했다.

SK텔레콤은 KT와 마찬가지로 16일부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단말기 대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또한 SK텔레콤은 15일 한달 전에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며 "LTE망과 와이파이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종망 동시전송 신기술 '멀티패스(Multi-Path)'의 네트워크 적용을 완료했다"며 KT의 세계 최초 주장을 반박했다. KT의 광고대로라면 SK텔레콤은 세계최초 기술을 하루만에 시연한 것이다.

LG유플러스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3밴드 LTE-A와 와이파이를 묶어 최대 1.17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멀티패스(Giga Multi-Path)' 기술을 이달 중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이 끝나는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KT가 내놓은 LTE와 와이파이의 결합서비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동일한 방식의 기술 개발을 일찌감치 완료했기에 '세계최초'라는 표현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KT가 해당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닐 뿐 더러 SK텔레콤과 펌웨어 업데이트 시기까지 같았음에도 '세계 최초'라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한 네트워크 기술 담당자는 "LTE기술이 나오고 LTE-A, 3밴드 LTE-A 서비스가 이통사에서 같은 시기에 나오는 건 기술 개발부터 회사마다 순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것을 놓고 누가 최초니 아니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3밴드 LTE-A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놓고 펼쳐진 이동통신사들의 소송 난타전과 유사한 모습이다.

이통업계 일각에선 양사간 신경전이 법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KT의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제조사에서 진행하기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 모두 기가 LTE를 사용할 수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S6 시리즈의 펌웨어 업데이트는 삼성전자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SK텔레콤·LG유플러스 고객이 모두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며 "상용화란 단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미에 비춰볼 때 KT의 세계 최초 문구 사용은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지난해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광고를 사용해 KT에 허위 광고 소송을 당한만큼 SKT가 반격에 나설 여지는 충분하다"며 "당시 KT가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던 사실을 SK텔레콤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은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삼성테크윈, 17억 달러 항공기 엔진부품 공급

삼성테크윈(대표 김철교)은 17일 파리에어쇼에서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 P&W와 항공기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RSP)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테크윈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62년까지 48년간 17억 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엔진부품 공급권을 획득했다. RSP(Risk and Revenue Sharing Program)는 항공기 엔진의 개발·양산·애프터마켓(유지보수·서비스)까지 모든 사업의 리스크와 수입을 참여지분만큼 배분하는 계약방식으로 항공업계 선진업체들의 사업형태다.


16일 프랑스 파리에어쇼에서 삼성테크윈 김철교 사장(가운데)과 P&W社의 짐 머서(Jim Maser) 마케팅사업부장(왼쪽), 베넷 크로스웰(Bennett Croswell) 방산부문 사장(오른쪽)이 GTF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RSP)에 대한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의 이번 계약 참여는 지난해 P&W와의 9억 달러 규모 공급권 계약, 올해 1월 미국 GE와의 4억3000만 달러 규모 부품 공급권 계약에 이어 연달아 대규모 사업권을 따낸 쾌거로 평가된다.

삼성테크윈은 최근 6개월간 총액 30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테크윈이 공동개발에 참여한 제품은 P&W의 차세대 GTF(Geared Turbo Fan) 항공기 엔진이다. 세계 최초로 기어(gear) 방식이 적용된 고효율 엔진으로 연료소비율, 소음, 성능개량 가능성 측면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테크윈은 GTF 엔진 터빈부의 고압·저압 터빈 사이에 장착되는 MTF(Middle Turbine Frame)의 개발·생산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삼성테크윈은 "이번 RSP 참여를 통해 3~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일반 부품 공급업체에서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지위가 격상됐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에서 SUHD TV 1만대 판매 돌파를 기념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SUHD TV, 3개월새 1만대 돌파

커브드 라인 전년比 5배 성장
55형 이상 대형TV 비중 급증

삼성전자는 SUHD TV의 국내 판매량이 출시 3개월만인 5월 중순까지 1만대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TV 수요의 감소에도 SUHD TV가 지난해 출시된 동급 모델(9시리즈) 대비 두 배 빠른 속도로 1만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SUHD TV 1만5000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1~5월) 삼성전자의 커브드 TV와 커브드 초고화질(UHD) TV는 각각 5만2000대, 3만6000여대가 판매돼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TV 판매 중 55형 이상 대형 TV 비중도 지난해 13%에서 23%로 급증하는 등 고화질·대화면 프리미엄 제품 군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 SUHD TV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삼성전자 '65인치 SUHD TV'(65JS9500)에 대해 HD화질, UHD 성능, 음질, 다기능 등에서 최우수(Excellent) 평가를 하고 역대 액정표시장치(LCD) TV 평가 점수 중 최고점인 81점을 부여했다.

영국 최고 IT 전문 잡지 '왓 하이파이'는 55형 UHD TV 비교 평가에서 삼성전자 SUHD TV에 만점(5-star)을 부여했다. 독일의 IT 테스트 전문 매체 '디지털 테스티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보다 높은 점수(90% 만족도)를 준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매장에 진열이 완료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SUHD의 우수한 화질 및 품격 있는 디자인에 대한 구매자들의 호평이 입소문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박벤처 2기 후보생 공모
SK, 그룹차원 지원 팔 걷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가 '대박 벤처'를 만들기 위해 제2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대전센터는 17일 "대전시와 SK그룹과 함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하는 '2015 드림벤처스타 2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정보통신 전 분야(스마트홈 및 ICT융합 기술·제조·서비스 등) △에너지 △반도체 △생명공학(BT) 등이다. 지난해 10월 첫 공모에 비해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했고 지원 자격도 대전·충남 이외의 전국으로 문호를 넓혔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내 인큐베이팅 기업들이 지난 1월 30일 기술시연회를 연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SK 제공

공모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내부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 규모는 10개 업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발된 업체에게는 10개월간 다양하고 집중적인 창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선발과 동시에 초기 자본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으로 판단되면 최대 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단계별로 운영자금을 대출받거나 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다.

SK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원도 병행된다. SK는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사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한진기자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뒤에 누군가 있다?

언론사 제휴평가 놓고 청와대 입김 작용설에 언론길들이기 논란 확산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둘러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28일 언론사의 제휴평가를 언론사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때 거론된 사전협의 단체들이 일선 기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일부 인터넷신문이나 우익성향을 가진 매체 대표들의 단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일을 주도한 배경이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인 민병호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돼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포털 뉴스를 좌지우지 하기위해 포털업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온라인 뉴스가 급성장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들을 기선제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지로 본 것이다.

앞서 평가위원회 참여를 제안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단체들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5개다. 그러나 발표 당일 지지 태도를 밝힌 인신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3주 지난 지금까지 참여 여부에 미온적인 태도다.

단체들이 선불리 참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평가위원회의 영향력이 개별 언론사들의 생존 기반을 좌우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언론 생태계는 두 포털(네이버·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에 '입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회사의 존패와 직결된다.

대다수 인터넷신문들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뉴스 이용자 단체와 공신력 있는 언론시민단체, 언론인권단체, 현업언론기자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을 (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기자가 참여하지 않는 언론평가조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지난 11일 논평에서 평가위원회 제안에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향을 바꿔 포털에게 앞서 한 '평가위원회' 제안을 취소하고 현 정권의 입맛대로 포털을 조정하기 위해 포털을 세무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파다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소식을 접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세청이 이상하다. 안그래도 국세청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국세청 요즘 비리가 많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는 이런 이상한 세무조사를 한다. 찬찬히 지켜봐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전날 이재웅 전 대표는 "뭔가 잘 못한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사건 10일 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 된 지 1년도 안되어서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연대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은 친여 극우성향의 인터넷매체인 '데일리안'의 발행인 겸 대표로 10년간 재직한 인물이다. 여기에 지난 5월 문화부가 신설한 국정홍보 차관보에 이의춘을 임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물의를 일으킨 언론인"이라며 "민병호 대표 아래에서 2년간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보협력관제가 '친정부 언론인을 동원한 언론통제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 항공기 '랜딩기어' 개발 나선다

佛 기업과 공동개발 MOU 글로벌 업체 수출길 모색

한화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어쇼 현장에서 글로벌 항공기 랜딩기어 전문업체인 미카에르사와 랜딩기어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는 한화 항공영업총괄 박진억 상무와 미카에르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화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미카에르에서 공급하고 있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장착용 랜딩기어 핵심부품에 대한 공동개발 참여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글로벌 항공업체들에 랜딩기어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미카에르와 2011년부터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초경량제트기 랜딩기어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축적된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항공기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경량제트기 랜딩기어 시장과 △민수헬기 분야 및 △국내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전투기(KF-X) 랜딩기어 개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화 항공영업총괄 박진억 상무(오른쪽)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어쇼 현장 내 미카에르사 부스에서 랜딩기어 시스템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화는 국내 항공기 유압전문회사로 랜딩기어 시스템 공동개발을 통해 수출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카에르와 함께 세계 메이저 항공업체들과의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roman@

GS파워, 경영난에 무보증 회사채 2500억 발행

지난해 매출 8106억원 전년比 2731억원 줄어 영업익·당기순익도 감소

GS파워가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한데 이어 최근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무보증 회사채 2500억원' 발행 신고서를 접수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파워는 1호기 열병합발전소 노후화 설비 개체·용량증대와 안양열병합발전소 2호기 건설자금 목적으로 2500억원을 무보증으로 사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 채무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은 이달 25일부터다.

GS파워는 무보증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 2500억원 중 1000억원 가량은 기존 1호기 열병합발전소 노후설비를 개체하고 용량을 증대시켜 수익을 도모할 전략이다. 나머지 1500억원은 안양 열병합발전소 2호기 건설자금으로 사용된다.

GS파워가 진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에너지 보급정책, 물가 변동 등의 요인으로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측은 회사채 발행에 대한 20여 가지의 투자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GS파워는 지난해 매출액 810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731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60억원이 감소한 784억원을 기록했다.

GS파워의 전력판매는 전력 수급 안정화의 영향으로 2013년 매출액 8206억원에서 지난해 33.1% 감소한 5493억원을 기록했다. 열판매 역시 2013년 2631억원에서 지난해 14.0% 감소한 2262억원을 기록했다.

또 GS파워의 차입금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총차입금은 약 963억원, 순차입금은 716억원이다. 또한 GS파워는 올해부터 안양 열병합발전소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GS파워가 경기도 부천 지역에 열요금 인상안을 내놨다가 부천 아파트 연합회의 반발에 인상안이 철회됐다. GS파워는 부천을 비롯해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등에 경기도 일부시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혹시 모를 열요금 인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S파워 측은 "계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구조 특성상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일 뿐 이번 회사채 발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올해 초 부천 열요금 인상안 문제는 지역 시민들이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요금이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삼성SDI, 美서 인조대리석 '스타론' 선봬

인테리어 전시회 '네오콘' 참가

삼성SDI는 15~17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상업 건축·인테리어 전시회 '네오콘'에 참가했다.

삼성SDI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700여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관람객은 5만명 이상 참관했다.

네오콘은 1969년부터 개최된 상업부문 특화 인테리어 전시회다.

오피스, 병원, 교육시설, 공공시설, 정부기관과 같은 상업 시설 전반에 사용되는 가구·인테리어 관련 제품, 소재, 디자인 등이 전시된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인조대리석 전문 브랜드인 '스타론'을 활용해 리셉션 데스크, 소파, 테이블, 의자, 책장 등 다양한 가구 전시물을 선보였다.

이상국 삼성SDI 건자재사업팀장 상무는 "앞으로 디자인 마케팅을 강화해 미주와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18세기 오케스트라' 한화클래식 무대 오른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한화클래식 2015' 무대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올해 초청 아티스트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프란츠 브뤼헨이 창단해 이끌어 온 18세기 오케스트라(사진)다.

19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과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1일 대전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대전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하다.

가격은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이다.

이번 공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감안해 공연장 소독 등 철저한 사전 위생관리를 거친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

지금껏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신데렐라!
2015, 신데렐라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신작

토니상 9개 부문, Emmy어워즈 2개부문, 총 30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수상.

'더 뮤지컬' 설문조사 2015년 기대작 1위

2015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라이선스 뮤지컬

더 뮤지컬 2015년 1월호

- 1위 〈신데렐라〉 19.8%(75명)
- 2위 〈팬텀〉 17.7%(67명)
- 3위 〈베어〉 13%(49명)
-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4%
- 5위 〈로빈훗〉 10.1%

올해 처음 소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 가장 기대를 모은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다. 마법같은 무대와 의상 체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원작 자체에 대한 호감도 한 몫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데렐라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데렐라〉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의 제1의 관심사 였다.

2015,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해 줄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앙상블을 찾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9월 12일 ~ 2015년 11월 8일 ◈ **오디션 일정** 2015년 6월 29일 ~ 2015년 6월 30일

*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가족 행복 챙기니 능률도 '쑥쑥'

수요일은 가족사랑의날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⑲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아이 해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 제공

어린이날 맞아 '아이 해피 페스티벌'
매년 하계휴양소 운영 등 휴가 지원
가족 간 소통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가족들의 행복 증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아이 해피 페스티벌'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명랑운동회를 포함해 가족 신문 만들기 대회와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 등이 펼쳐졌다. 과학 키트(KIT)를 만들고 해외 각국의 놀이문화를 체험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했다. 이천·청주사업장을 합쳐 3000여명의 가족들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그 밖에도 SK하이닉스는 임직원 가족들이 문화·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이다.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통해 이천·청주의 임직원 가족들은 금난새 지휘의 유라시안 오케스트라를 접해볼 수 있다. 지난해 이천·청주 각각 1000여명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했다. 총 1300여명이 프로야구·프로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일상 속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의 가족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사측은 매년 '해피 패밀리 데이'를 열고 임직원 가족들을 회사로 초청해 회사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일터에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업현황을 소개하고 반도체 전시관 관람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 가족들에게 무료로 숙박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족사랑 교육 특강'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 가족들의 휴가에도 신경쓰고 있다.

사측은 매년 7~8월 중 한 달동안 동해와 서해 지역에 각각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임직원 가족들의 여름휴가를 지원해주고 있다.

휴양소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와 무료 취사장·샤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됐으며 연간 이용인원이 1만여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미취학 자녀를 둔 임직원들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30여명의 보육교사를 포함해 도서실, 조리실, 실외놀이터, 휴게실 등을 갖춘 직장 어린이집을 이천·청주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SK하이닉스·협력업체 직원들의 3교대 근무에 맞춰 24시간 3교대로 운영된다. 또한 사측은 사내 임산부들을 위해 '임산부 사원증 액세서리'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전후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등 임산부 배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래 사원증 목걸이는 빨간색이지만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핑크색을 배부해 통근버스 우대좌석을 양보받을 수 있는 등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측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 정책을 통해서 임산부 직원들이 업무나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어 호응도가 높다.

출산휴가 기간은 통상 90일이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할 때는 최대 120일이다.

SK하이닉스는 "향후에도 임직원과 가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와 같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아이 해피 페스티벌 개최	올해 어린이날 맞아 3000여명 가족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 등 실시
가족 단위 문화스포츠 체험	오케스트라 공연 및 프로야구프로농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가족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가족 초청해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추억 마련하는 '해피 패밀리 데이' 운영 행복한 가정생활 위한 외부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지원하는 '가족사랑 교육 특강'
임산부 배려정책	임산부 사원증 액세서리 제도 도입 및 출산휴가 사용 장려
직장 어린이집 운영	이천청주 사업장 인근에 24시간 3교대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공동기획 : 여성가족부 metro

임직원 자녀 대상 매년 방학캠프 열어

셀프리더십 스쿨·우주과학캠프 등
건강한 방학 지원프로그램 지속 추진

SK하이닉스는 임직원 자녀들의 지적 성장과 심신 단련을 위해서 매년 방학캠프를 개최해오고 있다.

임직원 자녀 방학캠프는 SK하이닉스의 임직원 행복 증진 프로그램 중 하나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임직원 자녀들이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셀프리더십 스쿨'을 진행했다. 240여명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에게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 학교생활 목표 세우기 등 자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임직원 자녀들은 '일일 CEO 체험'에서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의 실제 집무실을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스쿨'을 진행했다. /SK하이닉스 제공

방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 자녀들이 준비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적극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는 가족들이 방학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유명 개그맨들이 등장하는 '개그콘서트' 공연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우고 우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서 2박 3일간 '우주과학캠프'를 실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및 문화재 등을 몸소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우리문화 답사기' 행사도 개최했다.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행사들 외에도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엄홍길 탐험대장과 함께 떠나는 지리산 둘레길 여행도 진행했다.

'우리가족 홈런Day'에는 임직원 가족 500여명이 단체로 인천문학구장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임직원 자녀들의 유익하고 건강한 방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은정기자

임대료 감면 종료 등 잇단 악재… 제2롯데 곤혹

안전사고·주차문제 등 메르스에 불안감 가중

재개장 바람 한달만에 빠져 입점 상인들 철수 고민까지

제2롯데월드가 재개장한 후에도 연이은 안전사고, 주차장 이용 제한 조치, 메르스, 입점상인 임대료 감면 종료 등 4대 악재로 홍역을 앓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4대 악재 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잦은 안전사고에 따른 불안감 가중이다.

제2롯데월드는 지난달 12일 재개장된 후 이달까지 한달간 용접 작업자 2명 화상, 지하마트 화재 등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이후 7번째다. 싱크홀,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등에 따른 지반 침하와 건물 붕괴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방문객의 발길은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평일 방문한 제2롯데월드 애비뉴엘 명품관에서 마주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과 내국인 등 방문객은 10명 이내였다. 4층 남성명품의류매장과 7층 면세점으로 올라갈수록 방문객을 찾아보기는 더욱 힘들었다. 매장에서 가장 많이 접한 풍경은 입점 업체 직원들이 전시된 제품의 옷매무새를 연신 가다듬거나 재고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제2롯데월드몰 애비뉴엘 명품관. 방문객은 하나도 없고 매장 직원들만 입구를 지키고 있다.

4층 랄프로렌 등 의류 매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재개장 후 매출이 10~20%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지만, 요즘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면서 "메르스 때문인지 중국인 관광객 수가 특히 줄어 하루에 1~2팀, 많으면 3~4팀 겨우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번째 논란거리는 엄격한 주차장 이용 제한 조치다. 제2롯데월드에 차를 몰고 가려면 방문객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비싼 주차비도 문제다. 10분당 1000원의 비싼 주차비를 내야 한다. 주차 후 3시간이 지나면 요금이 50% 할증돼 1600원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하루(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영업시간 동안 2756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엔 이달 하루 평균 400~500대 주차에 그쳤다.

최근 제2롯데월드를 방문한 신모씨(28)는"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주차 할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주차비로 3만3000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방문객은 "제2롯데월드 주차장은 텅텅 비었던데, 우리 아파트 주변은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2롯데월드는 최근 메르스 한파도 피해가지 못했다.

롯데건설과 롯데물산은 당초 제2롯데월드 재개장시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4월(6만6000명) 대비 2만~3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재개장 첫달인 지난달에는 9000명, 이달 들어서는 지난 10일까지 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의 월 매출은 예상치보다 최대 70%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점 상인의 임대료 감면 혜택도 지난달 종료되자, 일부 상인들은 입점 철수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상인들은 지난달까지 롯데그룹으로부터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방문객 감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대료를 30% 수준으로 감면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수족관과 영화관 영업정지가 풀리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종료돼 현재 정상 마진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입점 상인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월 평균 1200만원 수준으로 월 매출액 300~400만원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롯데월드 애비뉴엘 명품관 매장은 2만9800㎡(약 9000평)이며 입점 매장수는 225곳이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곳당 40평 수준의 매장을 갖고 있다. 입점 업체 중 일부는 월 매출로 직원 월급을 간신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가 오르면 입점 상인들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지난달 입점업체들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며 "사실 지난 2월까지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5월까지 연장했고 기존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200억원까지 지원금을 늘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롯대百, 36년만에 50개점 돌파… 매출 3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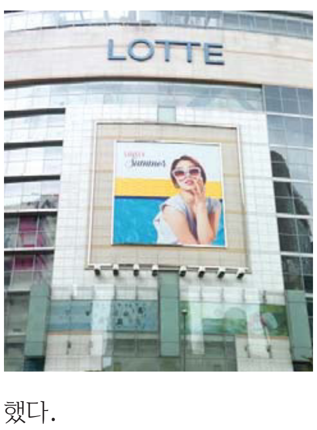
초대형 케이크 전시 등 개장기념 반값 할인 행사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이 36년 만에 50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300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1979년 소공동 본점을 시작으로 지난달 롯데 팩토리 아울렛 인천점까지 50개의 점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454억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4조2000억원으로 311.7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본점·잠실점 등 백화점 33개점, 파주점·김해점 등 아울렛 15개점, 청주·대구 등 영플라자 2개점 등이다.

롯데는 1979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쇼핑 업태를 만들며 성장



했다.

1979년에는 기존 백화점의 2~3배에 달하는 '롯데쇼핑센터'를 개장했다. 2003년에는 젊은층을 겨냥해 점포 외관과 디자인, 층별 구성 등 모든 면을 백화점과 차별화한 '영플라자'를 열었다.

2005년에는 서울 강북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북 최초로 '본점 에비뉴엘'을 개장했다. 2008년에는 도심형 아울렛인 '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을 오픈했다.

롯데는 18일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50개점 돌파를 기념하는 초대형 5단 슈가크래프트 케이크를 전시할 계획이다. 25일까지는 국내 50번째 점포인 롯데팩토리 아웃렛 인천점 개장을 기념해 선착순 반값 할인 행사도 연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 전무는 "36년 동안 한결같은 고객들의 사랑과 격려로 롯데백화점이 전국적으로 50개 점포를 운영하게 됐다"며 "다양한 쇼핑 서비스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유통 대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



한국도자기, 'PN풍년' 압력솥 세트 출시 한국도자기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PN풍년과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PN풍년 4인용 압력솥과 한국도자기 2인조 반상기를 세트로 구성, 기획가 9만9000원에 수도권 롯데백화점(안산점 제외)에서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판매된다. /한국도자기 제공

롯데면세점 제주, 2.5배 확장·이전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이 오는 19일 제주점을 제주시 도령로 롯데시티호텔제주로 이전해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현지법인인 '롯데면세점제주'가 운영한다. 7월2일부로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된다. 대표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제주점장이 맡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전체면적 6612㎡(약 2000평) 규모로 기존보다 약 2.5배 확장됐다. 롯데시티호텔제주 1층부터 3층에 있다. 고급 시계·보석 브랜드인 불가리와 티파니를 비롯한 270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해외 명품 패션·잡화·화장품·시계·보석·주류·담배 등 모든 품목이 판매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공간도 선보인다. 해당 공간은 1935㎡(585평) 규모로 서울 소공동 본점의 중소기업 매장 규모(442평)보다 넓다. 이 곳에는 약 1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특히 3층에는 '제주 특산품 전용관'을 마련해 총 26개 제주 특산품 판매 업체가 들어선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GS샵, 伊 인터코스와 MOU 체결

GS샵(대표 허태수)은 지난 16일 샤넬과 디올 등 글로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태리 화장품 제조사인 인터코스(intercos)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GS샵은 세계적인 화장품 제작 기술력을 가진 인터코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제형의 색조 화장품 출시한다.

GS샵은 그동안 에이지 투웨니스, 조성아22 등 홈쇼핑 시장에서 색조 화장품을 히트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코스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코스는 1972년 설립돼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메이크업 OEM(주문자 상표 부착품) 전문 회사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매주 수요일 행사제품 선정해서 가격 할인해드려요"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가 가족 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마다 행사 제품을 선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 동참의 일환이다. /롯데 하이마트 제공

아모레, 디올에 쿠션기술 전수한다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화장품 크리스찬 디올과 쿠션 화장품 기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맺은 파트너십 계약을 시작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디올 측에 쿠션 화장품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관련 국내외 14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특허 등록 14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 을 출시한 이래 13개 브랜드를 통해 쿠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올은 쿠션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아모레퍼시픽의 도움을 받게된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디올을 통해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 쿠션 제품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쿠션 기술 공유에 대한 첫 시작 단계로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디올을 통해 유럽과 같은 큰 시장에 쿠션 제품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9월 '교촌치킨 도쿄 1호점' 오픈

교촌치킨이 9월에 일본 도쿄에 1호점을 오픈한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회장 권원강)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일본 레드플레닛푸드사와 교촌아시아 디벨로프먼트 합작사 설립식과 일본 마스터프랜차이즈 조인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레드플레닛푸드사는 일본 자스닥 상장사인 레드플레닛재팬의 자회사로 세계적인 외식 브랜드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웬디스 햄버거 등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교촌은 이번 협약으로 일본과 홍콩·마카오·싱가포르·대만 등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다.

9월에는 일본 도쿄시내 중심가인 롯폰기에 약 80평(264㎡) 규모로 글로벌 치맥(치킨과 맥주) 콘셉트를 적용한 일본 1호점을 선보인다. 내년 말까지 동경 주요 상권에 추가 매장을 열 예정이다. 또한 홍콩 코즈웨이베이 쇼핑몰을 비롯해 마카오·싱가포르·대만에도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동원F&B, 치즈시장 1위 노린다

'소와나무' 슬라이스 치즈 4종 리뉴얼 출시

동원F&B(대표이사 박성칠)는 '소와나무' 슬라이스 치즈를 쿠킹 치즈 콘셉트로 리뉴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원F&B는 기존에 판매되던 슬라이스 치즈와 뼈가 좋아하는 고칼슘치즈, 네모난 크림치즈를 각각 '체다치즈', '고칼슘치즈', '스윗크림치즈'로 리뉴얼하고 '모짜렐라치즈'를 선보였다. 또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각 제품별 대표특징 및 활용 요리들을 감성적으로 담아내는 한편 패키지의 통일성을 더욱 강화했다.

모짜렐라치즈는 국산 원유로 만들어져온스트레칭 기법을 활용해 쫀득쫀득할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25초만 녹이면 퐁듀치즈로도 즐길 수 있다. 기존 슬라이스 치즈를 리뉴얼한 체다치즈는 기존 제품에 비해 나트륨을 25% 줄였다. 스윗크림치즈는 호주 청정지역 크림치즈로 부드럽게 만들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OB, 고급맥주 브랜드 강화

'프리미어 OB 바이젠' 출시
가격·맛·칼로리 등 차별화

오비맥주가 브랜드 이원화 전략으로 시장 강화에 나섰다.

오비맥주는 다양한 맛으로 국내 맥주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수입 맥주에 맞서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하고 '카스'는 대중적인 브랜드로 키워 업계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17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독일 전통의 맥주양조법으로 제조한 밀 맥주 '프리미어 OB 바이젠'를 선보였다. 지난해 출시한 올몰트 맥주 '더 프리미어'에 이은 두 번째 프리미엄 제품이다.

프리미어 OB 바이젠은 AB인베브의 브루마스터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 독일산 밀맥아와 유럽산 보리맥아만을 100%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바이젠(Weizen)은 독일어로 '밀(Wheat)로 만든 맥주'를 뜻한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 밀 맥주에만 통용되는 명칭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형 맥주제조사가 밀 맥주를 선보인 적은 있으나 메이저 맥주 회사가 출시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오비맥주는 프리미어 OB 바이젠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포장에서 잘 익은 밀 이삭을 연상시키는 황금빛



타원형 등으로 고급 이미지를 강조했다.

프리미어 OB 바이젠의 알코올 도수는 5도이며, 가격은 355ml 캔 기준으로 1490원이다. 카스와 하이트 등 국내 대표적인 맥주 제품 보다는 가격이 16%가량 비싸지만 국내에서 40%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 맥주보다는 저렴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오비맥주는 카스라는 대중적인 브랜드 외에 다양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바이젠을 시작으로 '브루마스터 셀렉션'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계속해 출시할 계획이다. 원재료, 발효방식, 알코올 함량, 맛, 칼로리 등을 차별화해 선보일 예정이다.

프리미어 OB 바이젠 개발에 참여한 독일인 브루마스터 스테판 뮐러(Stefan Muller)는 "독일 바이젠은 보리보다 밀이 귀했던 중세시대부터 귀족들이 마시던 귀한 술"이라며 "앞으로 계속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정통 맥주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석 오비맥주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다양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대중 브랜드와는 차별화한 독일 정통 프리미엄 밀맥주 프리미어 OB 바이젠를 선보이게 됐고 3개월 내에 200만병 이상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스는 대중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선보일 프리미엄 제품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밀맥주 시장은 오비맥주가 생산·판매중인 호가든이 연간 150만상자를 판매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정영식 오비맥주 양조기술연구소 이사는 밀맥주 시장에서 프리미어 OB 바이젠과 호가든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독일맥주와 벨기에 밀맥주에는 차이가 있으며, 호가든이 밀로 만들어 여성들이 좋아하는 풍미를 느끼게 해준다면 독일맥주는 발아 밀을 사용해 시원한 맛과 남성적인 이미지가 독특한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웰빙에 밀린 '도넛' 매출 지속 하락

메뉴 다양화·가맹사업 등
다양한 제품군 개발나서

도넛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과거 도넛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최근 대체식 증가와 웰빙 바람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도너츠는 1993년 론칭해 꾸준한 성장을 보였지만 지난 3년동안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2년 2171억원, 2013년 2099억원, 지난해 1980억원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던킨도너츠의 매출 비중이 비알코리아 매출중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던킨도너츠의 매장 수도 2012년 886개, 2013년 903개에서 지난해 800개로 줄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매장이 줄어든 것은 체질 개선 차원"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수익



부분에서 적자를 내는 매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런 추세를 감안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며 "핫밀·모닝콤보 등 아침메뉴와 커피를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리아가 운영 중인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분위기도 녹록치 않다. 국내 안테나숍 역할을 한 명동점(2013)과 강남점(2014)을 정리했다. 비싼 임대료와 실적 악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의 일환이다.

다만 회사측은 지난해 한국 진출 10년만에 가맹을 시작한 만큼 매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5월말 기준 직영점 89개를 운영중"이라며 "가맹사업도 시작한지 몇 달만에 17개까지 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해 일본 도넛브랜드 미스터도넛을 철수했다. 한때 매장이 100개에 이를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기는 했지만 철수 직전에는 매장이 15개에 불과했다. CJ푸드빌도 2007년 도노스튜디오를 론칭했지만 일년만에 정리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스크림·빙수·커피 등 다양한 먹거리 브랜드와 타브랜드에서도 도넛을 선보이고 있다"며 "'도넛'이라는 단일 콘텐츠로는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웰빙 식품에 대한 인식으로 튀긴 음식, 지방과 당이 과다한 식품이라는 오명도 한 몫했다"며 "기존 매장에서도 도넛 이외에 다른 제품군으로 구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카베진 "속 쓰림, 속속 파헤친다"

위촉즉발 설문 이벤트



한국 코와 주식회사가 속 쓰린 대한민국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번 설문 이벤트는 회식 다음 날, 매운야식을 먹은 후, 업무 스트레스, 과식 그리고 승진한 동기를 바라볼 때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속 쓰림 원인을 찾고자 기획됐다.

속 쓰림(위장장애)을 느끼는 빈도수와 속 쓰림 발생시의 대처방법 등 대한민국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속 쓰림' 피크 타임을 알아볼 예정이다.

위 점막부터 회복시키는 위장약 카베진 코와S정과 함께하는 이번 설문 이벤트는 오는 7월 12일 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한국 코와 주식회사의 공식블로그(http://blog.kowakorea.com)와 SNS 페이지(https://www.facebook.com/kowakorea)에서 참여 가능하다.

특히 배우 성동일을 모델로 설문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국 코와 주식회사의 카베진 코와 S정은 일본에서 1960년에 발매된 이래 카베진 시리즈의 제품으로 일본 내 위장약시장에서 여러 해 동안 1위를 지켰다. 올해로 55년이 되는 국민 위장약 브랜드로서 효과와 안전성이 높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제산, 건위, 소화 작용 등의 효과에 더해 약해진 위 점막을 수복하는 효과가 있어 위장질환으로 인한 반복되는 증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외층과 핵층의 작용시간을 달리하도록 2중정(Double Layer)구조로 설계되어 위의 활동에 따라 외층의 제산 성분은 과도한 위산을 중화해 위통과 속 쓰림을 진정시킨다. 핵층의 MMSC 성분과 소화효소, 건위성분은 위 점막을 수복하고 소화 활동과 위 건강을 돕는다.

카베진 코와S정의 핵심성분 중 하나인 MMSC(Methyl Methionine Sulfonium Chloride 메틸메티오닌설포늄염화물)는 양배추 유래 성분으로 위 점막 표층점액세포를 수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안전보건公, 산업현장 우수제품 선정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전동식 액츄에이터' 대상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산업현장의 우수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에서 '전동식 액츄에이터'가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에치케이씨가 출품한 '전동식 액츄에이터'는 플랜트 공정 자동화 등에 사용, 폭발위험 장소에서 밸브를 구동하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 장치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밸브의 개폐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방폭인증인 KCs 인증을 받았다. 유럽과 북미 등에서 해외 방폭인증도 획득했다.

올해 19회 째를 맞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성이 높은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제품의 유통을위해 마련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모두 28개사에서 33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최종 4개 부문에 대하여 8개 제품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전동식 액츄에이터'외에 '재해예방 혁신상'상에는 4개의 센서로 작업자의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가 수상 했다.

'최우수상' 3개 제품은 착용감을 높인 '가죽제 안전화'와 용접작업 등에서 안면부를 보호하는 '차광보안경', 폭발위험장소에서 오염공기를 차단하는 '단상 에어커튼'이 상을 받았다.

이밖에 '우수상'에는 유해물질의 흡입을 막고 안면을 보호하는 '방독마스크', 고열 작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안전모',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폭형 '레벨트랜스미터' 등 3개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제품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에 2백만원을 비롯해 재해예방 혁신상에 150만원, 최우수상 3개 제품에 각각 100만원, 우수상 3개 제품에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은 선정된 제품에 대해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제품 전시와 함께 시상식을 갖는 한편, 홍보책자 발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최치선기자

한미약품 '콕시브캡슐' 함량 선택 폭 넓혔다

100㎎·200㎎ 2종 출시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이 소염진통제 '콕시브캡슐(성분 세레콕시브)' 두 가지 함량(100㎎, 200㎎·사진)을 출시했다.

콕시브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COX-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소염진통제로,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수술 및 발치 후 통증 등 완화에 효과가 있다.

이 제품은 기존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에서 발현 가능한 위십이지장, 소장의 출혈, 궤양 등 상·하부 위장관계 부작용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미약품은 콕시브 100㎎을 추가 발매함으로써 함량 처방의 선택폭을 넓혔다.

콕시브 성분인 세레콕시브 용법은 질환과 중등도에 따라 100㎎과 200㎎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100㎎ 제품 미출시로 200㎎ 복용법만으로 제한돼 왔다.

또 한미약품은 콕시브를 경쟁제품 대비 낮은 약가(260원/100㎎, 520원/200㎎)로 출시해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콕시브는 효과와 부작용, 약가 측면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며 "의료진 처방의 폭 확대와 환자들의 삶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곰탕·갈비탕, 1팩 사면 1팩 더 드려요"

강강술래, 30일까지 전 매장 덤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30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한우사골곰탕과 갈비탕을 파격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전 매장에서는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한 소용량(350㎖·2팩·4400원)과 중용량(500㎖·2팩·5000원), 대용량(800㎖·2팩·7900원) 곰탕을 한 팩 사면 한 팩을 더 주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인삼과 홍삼을 넣은 늘봄갈비탕(500㎖·2팩)은 5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60% 할인된 2만5200원, 늘봄갈비탕 박스(500㎖·10팩)는 5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하며 무료로 배송해준다.

또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500g)과 술래양념구이(520g), 한돈양념구이(500g), 돼지양념구이(750g)으로 구성된 캠핑세트도 36%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50g·10봉)는 50%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이화여대 의료원이 음악대학 동문들로 이뤄진 앙상블을 정기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화의료원 제공

이화의료원, 카뮤이 앙상블 정기후원

내달 7일 세종문화회관 창단기념 첫 정기 연주회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카메라타 뮤지카 이화(Camerata Musica Ewha, 이하 카뮤이(CaMuE))' 앙상블을 정기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카뮤이는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창단된 앙상블 팀으로 이화여대 관현악 선후배들이 모여 만들었다.

각각 솔리스트로서의 역량을 가진 전문 예술가들로 구성된 카뮤이는 오는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330주년 J. S. Bach 그리고 Camerata Musica Ewha The First Concert'란 이름으로 창단 기념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흐(J.S Bach)의 작품과 이영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의 음악을 연주한다. 주웅 이화의료원 홍보실장은 "이번 앙상블 후원을 통해 대학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주회 입장권은 전석 2만원이다. 공연 문의 : 이든예술기획(02-6412-3053)

/복현명기자 hmbok@

star bag

3년 만에 스크린 복귀



배우 **이미연**이 영화 '해피 페이스북'(감독 박현진)으로 3년여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고 소속사 씨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17일 밝혔다.

'해피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를 유쾌하게 그려낼 작품이다.



새 앨범 트랙리스트 공개

걸그룹 **마마무**가 두 번째 미니앨범 '핑크 펑키(Pink Funky)' 스포일러 영상과 함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마마무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업그레이드된 음악적 기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마마무의 '핑크 펑키'는 오는 19일 정오에 공개된다.



여름 컴백 대전 합류

걸그룹 **에이핑크**도 걸그룹 컴백 대전에 합류한다.

소속사 에이큐브 관계자는 "7월 중 컴백을 위한 모든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며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모습과 에이핑크의 듣기 편한 노래로 올 여름을 강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 프로그램 MC 도전



그룹 2AM 멤버 **임슬옹**이 18일부터 서비스되는 케이블 TV VOD 가이드 영화 프로그램 '순수의 시작' MC를 맡는다.

'순수의 시작'은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최신 프리미엄 영화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슬옹은 지난달 싱어송라이터로 변신에 디지털 싱글을 발표한 바 있다.

"좌절해도 일상 돌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

영화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



곽경택(49) 감독이 달라졌다. '친구'처럼 거칠고 폭력적인 남성들의 세계를 그리던 그가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18일 개봉하는 '극비수사'다.

영화는 1978년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유괴사건을 다룬다. '친구2'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취재를 하던 중 부산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공길용 형사를 만나 알게 된 당시 유괴사건에 얽힌 비화가 영화의 출발점이 됐다. 사주로 범인의 단서를 제시한 김중산 도사의 역할이 사건 수사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그동안 세상에 알려진 적 없는 이야기였다. 곽 감독은 영화로 만들기 좋은 소재라는 '동물적 직감'을 느꼈다.

영화는 오프닝부터 인상적이다. 데모 현장에서 서로 스쳐지나가는 공길용(김윤석) 형사와 김중산(유해진) 도사의 모습, 그리고 비릿한 생선과 가득 쌓인 돈이 오버랩 되는 장면 등이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70년대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임팩트 있게 담은 오프닝이다. 곽경택 감독은 "짧은 장면이지만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갔다"며 "편집을 전적으로 편집감독에게 맡겼다. 김창주 편집감독이 잘 해줘서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70년대의 사실적인 재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영화들이 세트를 중심으로 과거를 재현한 것과 달리 '극비수사'는 다양한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구현해냈다. 곽경택 감독은 "70년대를 다룬 다른 영화를 보면 공간들이 다 좁게만 나와서 답답했다"며 "작정하고 길거리를 마음대로 훑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로케이션 촬영 이유를 설명했다. 유괴범과의 접선 장소인 레코드 가게와 약국, 그리고 여의도 KBS 건물 앞이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세트로 유공 주유소를 만들고 CG로 에어컨 실외기를 일일이 지운 점은 곽경택 감독의 디테일한 고집을 잘 보여준다. 그는 "미술팀과 CG팀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영화의 공을 스태프들에게 돌렸다.

유괴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영화의 관심은 사건의 해결 과정보다 신념과 소신을 지키려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에 있다. 곽경택 감독이 '극비수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소신'이다. 영화가 유괴사건이 해결된 뒤 공길용 형사와 김중산 도사가 겪게 되는 후일담을 다소 길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말이지만 그럼에도 곽경택 감독은 따뜻한 마무리로 이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

"실제로 두 분의 삶이 그랬어요. 영화와 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도 웃으면서 남은 삶을 사셨으니까요. 좌절을 겪더라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영화를 통해 주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흥행 부진을 겪었던 곽경택 감독은 초심으로 돌아간 '미운오리새끼' 이후 야심차게 '친구2'를 선보였다. 하지만 흥행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에도 '친구2'의 취재 과정 속에서 '극비수사'가 탄생한 만큼 곽 감독은 "새옹지마인 것 같다"며 덤덤하게 말했다. '극비수사'가 곽경택 감독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저는 자꾸 다른 곳으로 튀고 싶어요. 이번에 이런 영화를 했으니 다음에는 안 해본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죠."

차기작도 이미 정한 상태다. 장르는 판타지 스릴러로 캐스팅 마무리 단계다. 오는 8월 말 크랭크인 예정이다. 곽 감독은 "처음부터 눈 못 떼고 달리는 영화를 해보고 싶다"고 새 작품을 소개했다. "이번에도 서민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귀띔도 빼놓지 않았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한제훈)



'친구2' 취재중 들은 유괴사건 비화
70년대 사실적 재현에 심혈 기울여
소신·신념 지킨 사람들 위한 응원
안해본 장르 도전하며 자꾸 튀고파

연극·무용·영상 등의 다양한 콜라보

융복합공연축제 '파다프' 30일부터 대학로 열기

국내 유일의 융복합공연예술축제 '파다프(PADAF) 2015'가 오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동숭아트센터, 갤러리이앙, 예술가의 집 등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5회를 맞는 파다프는 '장르간의 충돌, 그 하모니의 미학'을 주제로, 그동안 추구했던 무용과 연극 두 장르간 융합에 그치지 않고 영화·사진·음악·미술·패션 등 다양한 장르의 충돌과 결합을 시도했다.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선숙 파다프 조직위원장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예술가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유연한 발상을 현실화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층위를 질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융복합 예술작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막작은 코믹한 마임과 음악이 융합된 프랑스 파트리스 티보의 'Cocorico'다. 모던테이블의 김재덕은 '시나위산조'로 춤을 추며 음악과 움직임의 독특한 융합을 시도한다. 연출가 임형택은 '회복'을 통해 세 쌍의 커플을 등장시켜 서로 연기, 노래, 춤의 다른 장르로 대화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독특한 장르를 실험한다.

안무가 박나은의 'ANGST, 불안', 현대무용가 정혜민의 'Act %', 아리아댄스프로젝트 정송이의 '눈물을 닮아…II'도 주목할만하다.

그 외 파다프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을 그린 '파다프 이미지전', 시민들과 거리에서 융복합 공연을 함께 즐기는 '파다프 커뮤니티 아트', 관객과 예술가의 대화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

파다프 홍보대사를 맡은 현대무용가 차진엽(사진)은 "열심히 준비한 예술가들이 소외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전설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3
오늘밤 9시 40분
O'live
한食대첩
제작지원
하동녹차
왕의녹차
올'리브 채널 번호: 케이블TV 지역 방송국에 문의 IPTV_올레TV 76번, U+TV 78번, BTV 206번 스카이라이프 271번 (HD 104번)

여름 가요계, 女風 맞선 男風 불어닥친다

2PM·틴탑·비투비 컴백 시동


2PM


틴탑



비투비

여름 가요시장에 컴백 출사표를 낸 건 걸그룹만이 아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들도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다. 2PM, 틴탑, 비투비 등이 그 주인공이다.

2PM은 지난 15일 정규 5집 음반 '넘버5(No.5)'를 발표했다. 뮤지션으로서 2PM만의 음악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다. 어쿠스틱, 얼반, R&B, 펑키,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 12곡을 수록했다.

타이틀곡 '우리집'은 2PM 멤버 준케이가 작사·작곡한 노래다. 일렉트로닉 소스를 바탕으로 어쿠스틱 기사와 신스 사운드가 균형을 이룬 곡이다. 이성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남자의 마음을 솔직한 화법과 중독성 있는 가사로 담았다. '우리집'은 발매와 동시에 엠넷,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의 음원 사이트 1위에 올랐다. 뮤직비디오도 공개 하루만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100만뷰를 기록했다.

그룹 틴탑은 오는 22일 컴백한다. 걸그룹 씨스타와 AOA가 동시에 컴백을 예고한 날이다. 이날 틴탑은 새 앨범 '내추럴 본 틴탑(NATURAL BORN TEEN TOP)'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타이틀곡은 '아침부터 아침까지(ah-ah)'다. 히트 프로듀서 블랙아이드 필승이 참여한 곡으로 틴탑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련된 멜로디와 함께 틴탑의 칼군무 퍼포먼스에 대한 팬의 기대감이 높다.

그룹 비투비는 오는 29일 첫 번째 정규 음반 '컴플리트(Complete)'를 발표한다. 타이틀곡은 7명 멤버들의 강한 포부를 담은 R&B 발라드 넘버인 '괜찮아요'다. 댄스곡이 강세인 여름 시장에서 발라드 곡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비투비는 팀의 막내인 육성재가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과 KBS2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이번 컴백 활동에 거는 기대도 크다. 감동과 공감, 위로를 내세운 노래로 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한글 박사로 변신한 전현무

◆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

오후 11시 10분



문학의 밤 특집. 문제적남자들의 한글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맞춤법 문제가 등장한다. 오답 퍼레이드 속에 홀로 정답을 맞히는 전현무는 무지라인 대표에서 한글 박사로 변신해 언어학자 빰치는 맞춤법 지식을 대공개한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감시로 새로운 시 유형의 창시자로 떠오른 하상욱 시인이 등장해 시청자 참여로 '시 백일장'을 연다.

/정리=하희철기자

◆ JTBC '님과 함께 시즌2'

오후 9시 40분

건희부부가 유쾌한 집들이를 한다. 집들이 준비 도중에 윤건은 장서희에게 대추 키스를 시전한다. 때마침 들이닥친 장서희의 동생들은 짓궂은 질문으로 두 사람을 당황시킨다.



◆ 올리브TV '한식대첩3'

오후 9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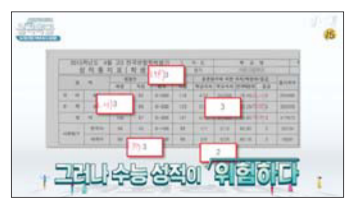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음식, 면요리 대결이 펼쳐진다. 서울팀은 면요리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만만하지만 북한팀과 경남팀 역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인다.



◆ tvN '성적욕망'

오후 8시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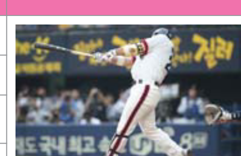
꿀성대 글로벌 엄친아 에릭남이 깜짝 출연한다. 성적상담소 코너에서는 내신은 전교권이지만 수능만 보면 번번이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학생이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일(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4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54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8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9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대단한 레시피 (3회)	55 딱 너 같은 딸 (24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명견만리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0회)	00 맨도롱 또똣 (12회)	00 가면 (8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도시가 살아난다	10 해피 투게더	15 어게인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인성채널e-안녕! 우리말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33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8회) (재)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삼성(SPOTV+) SK vs 한화(MBC SPORTS+) NC vs KT(SKY SPORTS) 롯데 vs 넥센(SBS SPORTS) KIA vs LG(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40·71·72회)	00 쇼킹 70억 (20회)	40 나도 영화감독이다 (1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성적욕망 (2회)	30 올리브쇼 2015 (21회)	00 아시아의 열대 4부 초원의 호수 생명을 품다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7회)	40 한식대첩 3 (5회)	30 한식대첩 3 (5회)	00 이베리아반도의 스라소니	00 나도 영화감독이다 (2회)	
22시				00 <예수가 선택한 제자, 12사도> 빌립, 시몬, 마태	20 크로싱 오버	
23시	00 썰전 (120회)	00 문제적 남자 (17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5회) 20 오늘 뭐 먹지? (72회)	00 배틀그라운드 브라더스 4부		
24시	20 5일간의 썸머 (5회)	20 집밥 백선생 (5회) (재)	00 한식대첩 3 (5회)	00 콜드 워터 골드 (4회)	40 간기남	

‘디펜딩 챔피언’ 일본, 3전 전승으로 16강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위니펙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FIFA 여자월드컵 C조 예선 3차전에서 에콰도르의 리기아 모레이라(오른쪽)와 헤딩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호마레 사와. /AP 연합뉴스

FIFA 여자월드컵

미국·호주 D조 1·2위 합류

지난 대회 우승국인 일본이 우승후보다운 경기력으로 조별예선을 3전 전승으로 가볍게 통과하고 16강에 올랐다.

일본은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위니펙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C조 1위(승점 9)로 16강에 올랐다. 일본은 전반 5분 터진 유키 오기미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승리를 거뒀다. 에콰도르는 3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C조의 스위스와 카메룬의 경기에서는 카메룬이 2-1로 승리하며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카메룬은 전반 24분 스위스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2분 동점을 만든 데 이어 후반 17분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경기를 뒤집었다. 카메룬에 패해 1승2패(승점 3)로 조 3위가 된 스위스는 다른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D조의 또 다른 우승후보 미국은 같은날 열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나이지리아를 1-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2승1무(승점 7)를 기록한 미국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미국은 전반 45분 간판스타 애비 웜바크(35)가 결승골을 꽂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나이지리아는 1무2패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호주와 스웨덴은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호주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으나, 10분 뒤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호주는 1승1무1패(승점 4)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조 2위로 16강행을 확정지었다. 스웨덴은 승패없이 3무(승점 3)의 조 3위다. 다른 조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을 가리게 됐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 17일 전적

▷ C조

일본(3승) 1(1-0 0-0)0 에콰도르(3패)

카메룬(2승1패) 2(0-1 2-0)1 스위스(1승2패)

▷ D조

미국(2승1무) 1(1-0 0-0) 나이지리아(1무2패)

호주(1승1무1패) 1(1-1 0-0)1 스웨덴(3무)

‘박라탄’ 박은선, 스페인전 공격 선봉

오늘 오전 8시 운명의 한판

윤덕여 감독이 한국 여자 축구대표 공격수 박은선(로시얀카·사진)의 출전을 예고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오전 8시(KBS 중계) 캐나다 오타와의 랜스다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5 FIFA 여자 월드컵 예선 E조 마지막 경기에서 스페인과 벼랑 끝 승부를 겨룬다. 두 팀은 나란히 승점 1점만을 얻은 상태로 비기거나 패할 시 탈락이 확정된다. 반면 승리하는 팀은 16강 진출이 유력해진다.

박은선은 지소연(첼시)과 함께 한국 여자 축구가 낳은 최고의 공격수로 꼽힌다. 182㎝에 74㎏의 당당한 체격을 갖춰 스웨덴의 장신 공격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연상시키는 피지컬과 골감각으로 ‘박라탄’이라는 별명이 있다.

12년 전 한국이 처음 출전한 2003 미국 월드컵에서 팀의 3전 전패를 벤치에서 지켜 봐야만 했던 박은선이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공격형 미드필더 지소연과 함께 여자대표팀 사상 최강의 공격진을 구축해 첫 승리와 16강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3월 키프로스컵에서 다친 왼쪽 발목과 소속팀에서 다친 오른쪽 발목 통증 때문에 지난 1, 2차전에 출전 못하고 벤치에서 쉬어야했다. 그 사이 한국은 1무 1패를 기록하며 조 최하위로 처졌다.

박은선은 이미 스페인을 상대로 골맛을 본 기억이 있다. 2004년 U-19(19세 이하) 여자 월드챔피언십 조별리그 경기(1-2 한국 패)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후반 27분 추격골을 터뜨렸다. 당시 대결했던 베로니카 보케테, 나탈리아 파블로스 등이 현재 A대표팀의 주전이기 때문에 11년 만의 설욕도 겸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희철기자



넥센 김하성 ‘양준혁·김태균’ 뛰어넘는다

신기록 신인왕 도전장

프로야구 넥센의 유격수 김하성(20·사진)이 사상 첫 3할-20홈런-20도루 신인왕에 도전한다.

김하성은 올해 프로 2년차, 만 20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임에도 넥센의 주전 유격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28·피츠버그)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 빠른 발을 앞세워 팀의 리드오프로 활약하면서도 장타력까지 갖췄다. 16일까지 기록은 무려 타율 0.302(245타수 74안타)에 12홈런 11도루다. 잔여 경기가 74경기나 되기 때문에 지금의 페이스라면 3할-20홈런-20도루는 가뿐해 보이고 시즌 중반 이후에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3할-30홈런-30도루도 가능성이 있다. 여지껏 누구도 넘보지 못한 신기록이다.



지금까지 역대 신인왕 중에서 3할-20홈런을 넘긴 타자는 단 2명뿐이다. 1993년 양준혁(삼성)과 2001년 김태균(한화)이다. 양준혁은 당시 타율 0.341에 23홈런을 기록했고 김태균은 타율 0.355에 20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도루는 각각 4도루와 2도루 뿐이었다. 3할-20도루를 넘긴 타자는 이순철(해태), 이정훈(빙그레), 유지현(LG), 이병규(LG)였으나 20홈런을 넘지는 못했다. 1996년 박재홍(현대)는 무려 30홈런 36도루를 기록하며 KBO 최초로 30-30 클럽에 가입했지만 타율이 0.295로 3할에 조금 모자랐다.

/하희철기자

아궤로 결승골… 아르헨, 우루과이 제압

코파 아메리카

파라과이와 함께 공동 1위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대결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거뒀다.

아르헨티나는 17일 오전(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 에스타디오 라 포르타다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 우루과이에 1-0으로 승리하며 예선 첫승을 챙겼다.

아르헨티나는 이날 승리로 1승1무를 기록하며, 앞서 자메이카를 1-0으로 물리친 파라과이와 함께 B조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27·FC바르셀로나)가 선발 출전한 아르헨티나는 볼점유율 7대3 정도로 전반 내내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유효 슈팅 수에서도 아르헨티나는 7개로, 3개에 그친 우루과이를 압도했다. 다소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던 아르헨티나는 다행히 후반 11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세르히오 아궤로(27·맨시티)의 헤딩골로 승리했다.

기대를 모았던 메시는 전반 26분 헤딩슛에 이어 후반 33분에는 우루과이 진영 페널티박스 밖에서 왼발 슛을 하는 등 활약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다.

우루과이는 에이스인 루이스 수아레스(28·FC바르셀로나)의 부재를 에딘손 카바니(28·파리 생제르맹)가 주축이 되어 아르헨티나에 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루과이는 1승1패를 기록하며, 조 3위로 밀렸다.

/하희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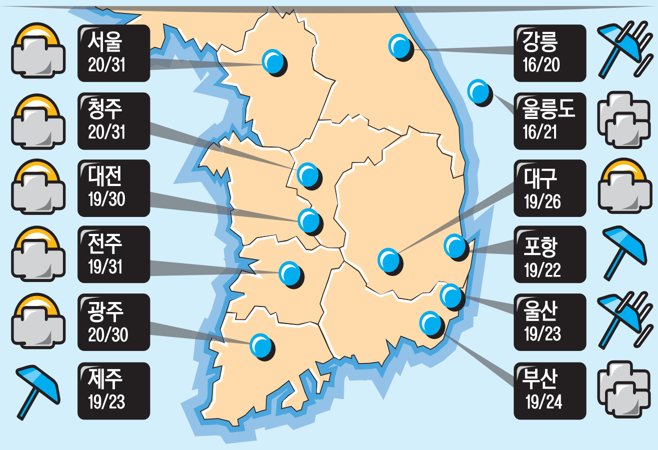


17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 라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예선에서 우루과이의 이지디오 아르발로(왼쪽)를 제치고 드리블하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AP 연합뉴스

날씨

6/18 목 일출시각 05:10 일몰시각 19:5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3		7	6	9	
6			1		2			8
3		2				5		1
9	2						1	5
7	5						8	3
4		3				1		9
2			9		5			4
	6	9	4		1	8	2	

		3			9			
6		8			7		3	
	2			6				
				8			6	4
8			3		4	2		
	9		2	1				
							7	5
	1		4			6		
				7			9	

스도쿠 정답

8	1	5	3	4	7	6	9	2
6	9	7	1	5	2	4	3	8
3	4	2	6	9	8	5	7	1
9	2	4	8	6	3	7	1	5
1	3	8	5	7	9	2	4	6
7	5	6	2	1	4	9	8	3
4	8	3	7	2	6	1	5	9
2	7	1	9	8	5	3	6	4
5	6	9	4	3	1	8	2	7

1	7	3	5	4	9	8	2	6
6	4	8	1	2	7	5	3	9
5	2	9	8	6	3	7	4	1
2	3	1	7	8	5	9	6	4
8	5	6	3	9	4	2	1	7
7	9	4	2	1	6	3	5	8
4	6	2	9	3	8	1	7	5
9	1	7	4	5	2	6	8	3
3	8	5	6	7	1	4	9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Economy Code Red, because of 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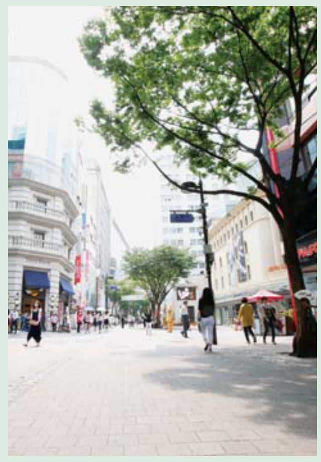
<메르스 충격, 경제가 무너진다>

The country's economy is greatly influenced by MERS which is ongoing for more than a month.

According to a research done from Korea Dining Industry on 8~14th, 560 restaurants' sales dropped 38.5% compared to the last 2 weeks.

Not only dining industry, but also travel agencies, performing hall and theaters, credit card companies, financial firms, farms and agriculture, economic industries and much more have faced major losses due to MER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ssumed that if MERS was to continue throughout August, the los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will be up to 20 billion doll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해 보인다. /연합뉴스

메르스 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며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8~14일 560개 외식업체를 조사한 결과 2주 전과 비교해 평균 매출액이 38.5%가 감소했다.

외식업종은 물론 여행·관광업종, 공연·극장가 등 문화산업, 신용카드사 등 금융업, 농축산업 등 경제산업 전반으로 메르스 피해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8월 말까지 갈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부부사이 불화, 참고 지내야 할까요 불만 담아두지 말고 신중히 풀어내시길

메르스000' 여자 78년 1월 9일 양력 14시경

Q 선생님! 제 언니에 대한 것입니다. 형부는 회사원으로 봉급생활자인데 낚시가 취미라서 주말마다 동호인과 함께 떠납니다. 언니와 따뜻하게 대화를 하는 예가 없으며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노점상 닭꼬치 구이를 해서 먹고 사는데 사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언니도 형부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알고 있는 제가 말린다고 말을 들을 형부나 언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쩌지는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언니의 사주팔자니 그냥 참고 지내야 합니까?

A 언니는 음팔통(陰八通:사주 여덟 글자가 모두 음으로 구성됨) 사주로 이는 사주의 기운이 한쪽 음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표현됩니다. 일단은 사연이 많고 굴곡이 있는 인생으로 펼쳐지고 내성적으로 작용을 하여 좋은 기운의 글자보다는 부정적인 자(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신으로 재물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데 더욱이 자신의 사주에 남편을 극하고 자신을 극하는 겁재칠살(劫財七殺)이 있다면 애초에 흔히 말하는 배신으로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상대방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어 화(禍)가 되니 가정의 관계는 흠결을 맞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이해관계도 적용시켜보면 앞으로 더욱 복잡다단해진다고 봅니다. 세분 모두 평소에 불만이 있어도 바로 터뜨리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쌓아둔 다음에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쟁투의 운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대체로 순박하고 겸손하며 남의 말을 잘 믿는데 역학 용어로 말하면 일주(日柱:생일)가 신미(辛未)인데 축월(丑月)에 태어나 사주 연간(年干)에 계수(癸水)가 투출되어 신약하여 인성(印星:나를 생해주는 오행)을 수호신으로 봅니다. 2016년에는 관살 운(官殺運)이 투출되니 알고 있는 남자가 노출된다고 불수 있습니다. 남편 궁에 충(沖)으로 형부와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고 여연살(女戀殺)이 있어 바깥 활동을 하면 정부(情夫)를 만나기 쉬운데 모든 게 사주팔자대로 인연되어집니다. 현재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토록 하여 두고두고 화근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하겠지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8일 (음 5월 3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됩니다. **60년생** 지출이 많겠습니다. **72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84년생** 친절한 전화 한 통화가 당신과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소 **49년생**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61년생** 사회는 냉정합니다. **73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85년생**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2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74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주위에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 행복합니다. **63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75년생**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87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독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용 **52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64년생**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88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뱀 **53년생**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65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77년생** 말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89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습니다.

말 **54년생** 감기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주변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90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다가오게 될것입니다.

양 **55년생** 일운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67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79년생**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1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 나비가 기뻐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닭 **57년생** 중도를 염두 해 두고 행동하세요. **69년생** 타인의 잘못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81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세요. **93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개 **58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0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2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9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돼지 **59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71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83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95년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민의 눈 보며 '눈물 흘리는 정부'가 필요하다



최치선의 세상만사

얼마 전 만리장성에서 젊은 남녀가 포옹을 하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이 둘은 10년간 연인이자 행위예술가로 함께 해왔는데 만리장성 퍼포먼스를 끝으로 헤어졌다고 한다. 이별을 표현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는 만리장성 양 끝에서 출발했고 90일 동안 걸어 중간에서 만났다. 그리고 둘은 한 번 포옹한 후 각자의 길을 떠났다. 그후 20년 만에 뉴욕의 어느 이벤트 현장에서 이들은 재회를 하게 된다.

다음 장면을 보니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의자에 눈을 감고 앉아 있고 맞은편 의자에 관람객이 와서 앉는다. 그녀가 눈을 뜨면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도, 움직임도 없이 1분 동안 마주보는 것이 퍼포먼스의 규칙이다. 하루 7시간씩 3달동안, 총 736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1500여명의 관람객과 눈을 마주쳤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10년 전 애인이었던 서독의 행위 예술가 울라이였다.

줄을 선 채 기다리던 울라이가 마침내 차례가 되어 그녀 앞에 마주 앉게 된 것이다. 백발의 울라이는 역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마리나의 얼굴을 바라본다. 1분 동안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고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1분이 흘러갈 쯤 마리나가 팔을 뻗어 울라이의 손을 잡는다. 울라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마리나의 눈에서도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메르스로 전국이 어수선한 이 때에 왠 뜬금없는 외국인 사랑타령이냐고 할 수 있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옅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두 행위예술가의 이야기를 해 보았다.

정부와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62명, 사망자 20명, 격리자는 곧 1만명이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중동감기쯤으로 알고 손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한다. 대구 남구청 공무원은 이말을 믿고 자신이 스스로 메르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20여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고를 안했다.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접촉자들이 메르스 감염에 노출된 상태로 공포에 떠는 상황이 됐다. 외국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을 기피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해외여행자의 국내방문 취소 상황은 심각할 정도다. 사후약방문으로 정부에서는 외국인에게 3000 달러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사지로 외국인을 끌어들이려 한다' 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누가 봐도 넌센스 같은 대응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며 웃음보다는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이 앞선다. 이미 세월호를 통해 충분히 국가 위기가무엇인지 경험을 한 정부인데도 메르스에 대처하는 모습은 그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한심스럽다. 국민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앞서 행위예술가 마리나와 울라이처럼 1분만의 교감을 통해서라도 눈물이 흐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정부는 국민과의 사랑은커녕 어떠한 소통도 원치 않는 듯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철저히 방치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지금의 메르스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면 할수록 정부는 더욱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정부를 국민 역시 철저히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부장

삼성-엘리엇 공방전에 속타는 개인투자자



기자 수첩
이 정 경
<경제부 기자>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공방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하나 둘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합병을 결정할 주주총회(17일)까지는 한달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 상황은 알 수 없다.

이러한 불투명한 전개에 속이 타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엘리엇의 합병 반대 공시가 나온 지난 4일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가장 높았던 날(10일7만5000원)과 가장 낮았던 날(16일6만5100원) 간의 차이는 무려 9900원이다.

엘리엇의 합병 반대 공시에 삼성물산 주가는 이틀만에 무려 1만3100원이 상승했고, 합병안 반대 가처분 소송 제기 이후 7000원이 상승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자사주 매각 공시를 하고, 엘리엇은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하며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11일부터 16일까지 무려 9900원이 하락했다.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의 배경에는 역시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공방이 있다. 갈등을 통해 중간배당, 합병비율, 합병 무산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탓이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주가가 요동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라며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요동치는 시기에 투자가 아닌 투기 성향의 주식을 사들이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한 달이 나 남아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공방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단순히 투기 심리로 삼성물산 주식을 담지 말고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물량도 큰 만큼 단기 투기 심리로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이슈로 주가가 요동칠 때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시장 감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제계약 협상에도 뒷심이 필요하다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내가 국제거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리한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만, 막상 마지막 계약체결 단계가 되면 지쳐서 더 양보하더라도 계약체결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국제계약 체결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없는 경우 많이 생기는 현상이다. 협상책임자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면 쉽게 지치게 되고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회사인 B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한국의 A사는 양보의 선을 정해 두고서 치열한 협상을 해 왔었다.

그러나 계약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생산 준비도 해야 하고,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 등으로 많은 준비를 해 온 A사로서는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생산이 늦어지게 되는 것도 A사로서는 부담이었던 것이다. B사도 A사와 마찬가지로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B사는 사내 법무팀의 검토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지연하였고, 결과적으로 B사는 계약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A사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내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 한국기업인 C사는 외국기업인 D사와 계약협상을 마무리하고 D사의 본사로 담당임원이 출장을 가서 계약체결식을 준비하였다. 계약체결식 당일 D사는 계약의 당사자를 D사에서 자신의 계열사로 바꾼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건 거래는 계열사가 담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모기업인 D사가 책임을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C사의 담당임원은 갑작스런 변화에 어찌해야 할 지를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서명을 거부하고 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시 계약 진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C사의 담당임원으로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열사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명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엉겁결에 D사의 말을 믿고 D사의 계열사를 당사자로 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결국 분쟁이 생기고 말았다. 모기업인 D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그 계열사는 재산이 없어서 C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 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전종민 ▷식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장 권오상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수산물안전과장 박일규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이제선 △기술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정의한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김솔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직무파견(보건복지부) 김효정

■ 중소기업청

△승진 ▷중소기업정책국 정책분석과 서기관 이정례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서기관 최열수

■ 서울시

△3급 승진 ▷기획담당관 김태균 ▷보육담당관 성은희 ▷교육정책담당관 김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시의회 의정담당관 김용남 ▷하천관리과장 정중곤 ▷공공재생과장 김성보 △4급 승진 ▷사회혁신담당관 장영민 ▷시민소통담당관 강지현 ▷예산담당관 이은호 ▷여성정책담당관 이성은 ▷정보기획담당관 박태주 ▷복지정책과 이형삼 ▷문화예술과 정경숙 ▷환경정책과 박진순 ▷주택정책과 안찬율 ▷공원녹지정책과 윤보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최갑영 ▷강동구 홍혜숙 ▷재생정책과 김진효 ▷도시계획과 양병현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 노영석 ▷한강사업본부 김용제 ▷서대문구 신현태 ▷금천구 모완수 ▷주거환경개선과 정거택 ▷도시관리과 김영식 ▷도시기반시설본부 강성욱

■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김지호 ▷안중출장소장 류제왕 ▷기획조정실장 박노식 ▷총무국장 신현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차득기

부 고

▲강득자씨 별세, 오상민(매일경제TV 기술부장)씨 모친상 = 17일, 충북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043-279-0144)

▲김만균씨 별세, 이동하(DGIST 기획처장)씨 장인상 = 17일 오전,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053-625-4466)

▲김수태(전 제일투자금융 부회장·상업은행 지점장)씨 별세, 김상명(전 현대종합상사 전무)씨 부친상, 이종지(전 동신제약 사장)·김진석(소호빌 대표)·강 진(전 앱솔루트코리아 회장)·손의상(자영업)씨 장인상 = 16일 낮 12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18일 오전 4시(3010-2262)

▲김숙자씨 별세, 박종길(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 전무)씨 장모상 =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2072-2020)

▲박인숙씨 별세, 임채무(탤런트) 씨 부인상 = 16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3779-1526)

▲박재혁씨 별세, 박의승(삼성물산 부사장)씨 부친상 = 16일 오후 11시30분,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9일 오전 (2258-5940)

기사제보=02)721-9861

호텔·별장 그리고 "年 26%의 수익"을 모두 잡으세요!

마지막 기회! (실투자금) 1,700만원

(10년 운영 계약) (5년단위 임대완료)

개별등기분양

전 세대 임대완료

선택 1. (임대보증금 5천만원 / 실투자금 1,700만원) + 월세 67만원

선택 2. (임대보증금 없음 / 실투자금 6천만원대) + 월세 113만원

제주성산일출봉 바로앞 호텔이 **5천에 3채** 매월 **2백만원** 수익

계약즉시 수익발생 (계약금의 年5% 준공시까지 확정지급)

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67만원** 임대 완료 객실 (1인당 5개까지 가능)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매년 7일 무료숙박

전 객실 임대완료 확정수익 **年26%** (실투자금대비)

제주도 직영호텔 4곳 연계사용 (889실) 年 7박 무료사용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VS 타분양형 호텔 비교대조표〉

	디아일랜드 마리나 2차	R호텔	D호텔
실투자금	1천만원대	7천만원대	6천만원대
중도금	60% 무이자	50% 무이자	60% 무이자
임대보증금	분양가 30% 임대보증금 지급	없음	없음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14.75~26%	11%	11%
현재 운영중인 호텔	디아일랜드 블루 호텔 (2013년 준공)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2015년 6월 준공)	없음	없음
현재 수익지급중인 호텔	디아일랜드 블루 호텔 (분양자 전원에게 분양 수익금 지급 중)	없음	없음

제주 동부권 최대 복합리조트 타운 디아일랜드 마리나호텔 특별분양

디아일랜드 호텔 그룹은 현재 서귀포, 성산 등 2곳에 호텔 358실을 이미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자 전원에게 수익을 지급중인 최초의 수익형 호텔입니다.

THE ISLAND MARINA



부대시설 안내

1. **실내 부대시설** : 4계절 실내수영장, 씨푸드뷔페(500인석), 컨벤션센터(500명 수용), 럭셔리 스파, 편의점, 사후면세점(예정), 커피숍 등
2. **야외 부대시설** : 야외수영장, 글램핑장, 캠핑장, 바베큐장, 잔디정원, 산책로 등

수익형 호텔이란?

유명관광지 호텔객실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개별등기 분양을 받아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전문 운영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을 맡겨 보증금+월세를 받으며 연7일은 개인별장용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말 합니다.

수익안심보장제란?

디아일랜드 호텔 & 리조트 그룹의 수익안심보장제는 상당액의 보증금이 없는 타상품과는 달리 운영사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에 임대차 기간 (5년단위) 동안 매달 월세를 받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안심보장상품을 말합니다. (운영계약 10년 완료)



수익형호텔에 지금까지 **이런 '수익안심 보장제'**는 없었다!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7만원 고정수익지급!

(생보부동산신탁은 본 사업의 분양관리 신탁사이며, 수익금은 시행사의 책임으로 지급합니다)

디아일랜드 마리나2차 예상수익표 (단위:만원)

	1채	3채	5채
실투자금	1,700	5,100	8,500
연수익	800	2,400	4,000



시행 및 운영사 제이디네이처 책임시공사 한성종합건설(주) 자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청약계좌 · 농협 301-0166-9730-91
· 신청금 : 100만원 · 예금주 : (주)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분양문의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02)563-3990